

울산대학교 안내시스템 개발*

전성복
울산대학

〈요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질이나 전달 체계가 기업 경쟁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양질의 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은 그 만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방문자가 방황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까지 보다 쉽고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게 유도 해 주는 것 또한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학의 경쟁력으로 보여 질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몇몇 대학들 외에는 대부분이 종합적인 계획없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당히 적용되고 있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안내 시스템이야말로 본 대학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 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요인으로 흥보 효과로도 연결될 것이다.

Researching and Developing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at the University of Ulsan

Jun Sung-Bok
Dep. of Visual Information Design

〈Abstract〉

Both high-quality information and a system of communicating that information are important business competition factors in the present information age. As such, these help an enterprise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its rivals. Universities are unique institutions and visitors should be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safely and easily. This is, in fact, their competitive edge.

Most recently-built universities, however, tend to apply such a system based on their own needs and without a comprehensive plan. The University of Ulsan is no exception.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as well as its implementation. A carefully-designed system will make a good impression on visitors to this university. This impression will, in turn, be an effective promotion of the University.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1. 서론

1-1. 연구목적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질이나 전달 체계가 기업 경쟁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양질의 정보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은 그 만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본 대학은 현재 말콤 볼드리지 전략 계획에 의한 품질 경영 혁신을 꾀하려 하고 있다. 그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경영 혁신 체계라면 안내 시스템의 개발과 정비는 하드웨어적인 품질 경영 혁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외부에서 접근하는 방문자가 방황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까지 보다 쉽고 안전하게 찾아 갈 수 있게 유도 해 주는 것 또한 방문자의 입장에서는 그 대학의 경쟁력으로 보여 질 것이다. 대학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본 대학을 방문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이 길을 묻는데 소비하게 되었다면 그 방문자에게는 본 대학의 이미지가 결코 좋게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본 대학内外에 설치 되어 있는 안내 시스템으로서는 외부로부터 본 대학까지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내에서도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각 건물을 찾아 가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내에 들어 가서도 적절한 안내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안내 시스템의 계획적인 구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대학에 적절한 안내 시스템의 개발과 구축, 그리고 시급한 시행이 절실한 실정이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서양의 대학들과 달리 대부분 하나의 캠퍼스 내에 모든 시설물들이 집중되어 있어 통일된 안내 시스템의 적용이 서양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몇몇 대학들 외에는 대부분이 종합적인 계획없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당히 적용되고 있다.

본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부로 부터 본 대학에 접근하는 유도 안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문제점으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목적지 접근에 용이한 새로운 안내 시스템을 개발, 제시한다.

새로운 안내 시스템은 예술관(28, 29호관)과 조형관(6호관)을 모델로 적용된 사례를 제시한다.

2. 울산대학교 안내 시스템 현황과 개선 방안

2-1. 외부로 부터의 접근

울산 외 지역에서 본 대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연암쪽에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는 것. 두번째는 경주 방면에서 울산공설운동장을 경유하여 접근하는 것. 세번째는 부산 해운대 방면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 네번째는 부산 노포동 방면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 다섯번째는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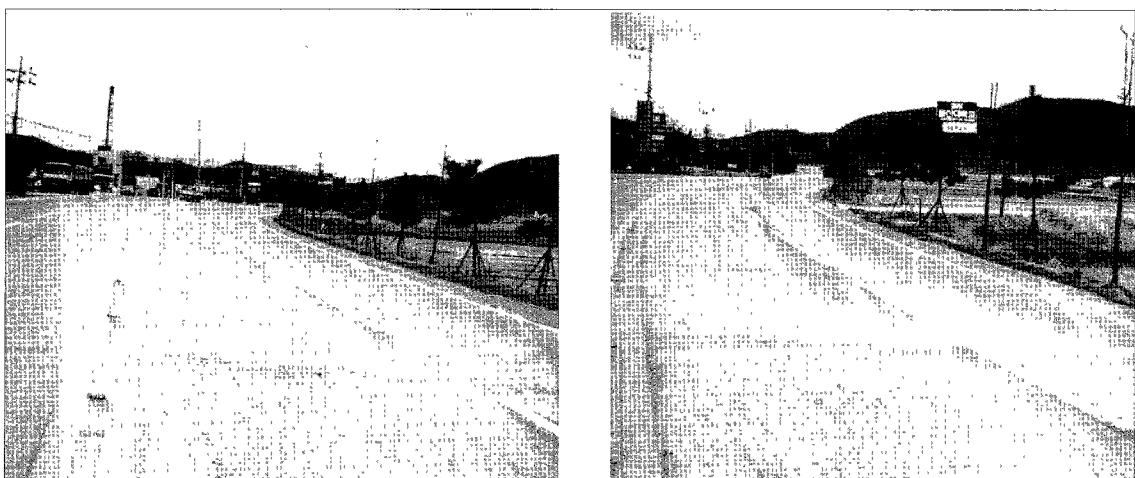


(그림1) 슬로건과 함께 울산대학교 교명을 써놓은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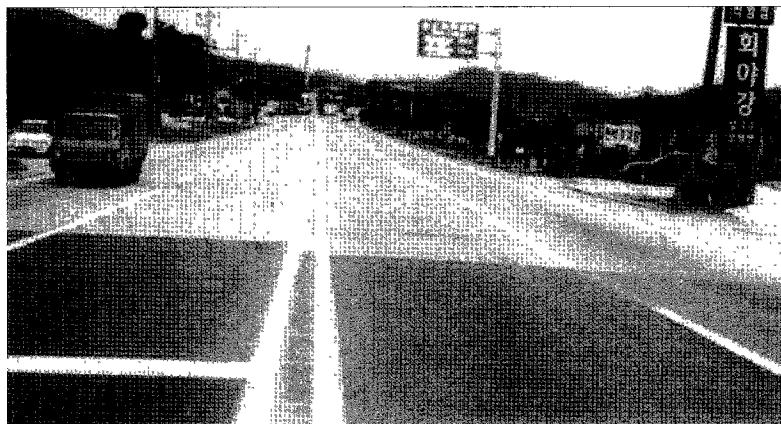
등 대중 교통으로 역이나 터미널에 도착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처음 찾아오는 방문자가 다섯번째 방법 외에 스용차 등으로 자가 운전을 하며 접근하는 나머지 루트로 접근하는 경우는 본 대학 쪽으로의 정확한 유도 안내판의 부족때문에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① 언양 쪽에서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 승용차로 접근하는 경우 이 루트가 가장 쉽게 찾아 올 수 있으나 신복로터리와 본 대학 사이에 본 대학에 근접했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본 대학 정문 앞 2, 3차로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을 무리하게 하게 되어 접촉사고의 위험이 높다. 신복로터리와 본 대학 사이 200~300미터 지점에 본 대학에 근접했다는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본 대학이 시작되는 담장 위 훈스에 대학 슬로건과 함께 교명을 써놓으면(그림1)



(그림2) 농로 쪽으로 들어가 있는 안내판/ 좌측: 50여 미터 전방, 우측: 20여미터 전방



(그림3) 울산컨트리 앞 울산과학대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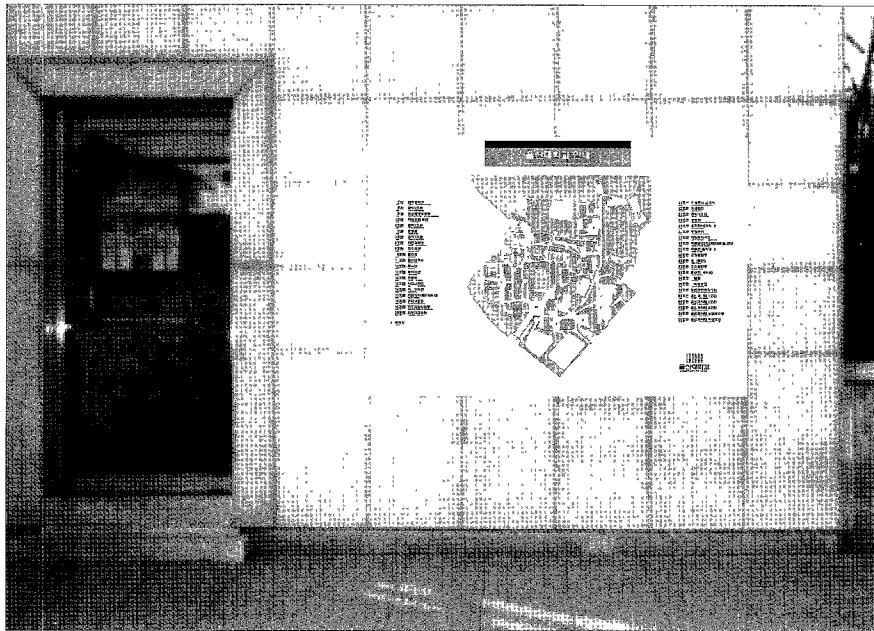
② 경주 방면에서 울산공설운동장을 경유하여 접근하는 경우 : 울산공항을 지나 울산공설운동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200~300미터 전방 지점과 다운동 다운사거리 직전, 그리고 신복로터리 직전의 세 곳에 본 대학으로 유도하는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다.

③ 부산 해운대 방면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 해운대와 울산간 국도가 끝나는 교차로(두왕 사거리) 전방 지점과, 그곳을 좌회전하여 공업탑 로터리와 문수 축구장(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의 전방, 그리고 옥현 사거리 전방 세 곳에 본 대학으로 유도하는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다.

④ 부산 노포동 방면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 현재 울산컨트리를 지나 300여 미터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은 잘못 설치되어 있다.(그림2) 도로에서 농로 쪽으로 10여 미터 정도 들어가 있으며 높이가 낮기 때문에 가로수에 가려져 있어 의식적으로 보지 않는 한 잘 보이지 않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다. 더욱이 커브길에 설치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울산과학대학의 안내표지판(그림3)처럼 견고하고 크게 만들어 운전자가 주행 중에 쉽게



(그림4) 행정본관 앞 안내판



(그림5) 정문에 종합 안내판을 설치한 예/ 좌측 수위실 벽면



(그림6) 현행 대학 내 행선지 표지판

볼 수 있는 직선 도로변에 다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본 대학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문수 축구장 전방과 울산과학대학 직전 200여 미터 지점에 본 대학에 근접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1차로로의 차로 변경을 유도 해 주어야 한다. 정문 20~30미터 직전에 하향 경사가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본 대학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훨씬 접근이 위험하나 안전도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방문자가 본 대학 앞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본 대학 쪽으로 무리하게 좌회전하여 생기는 접촉사고가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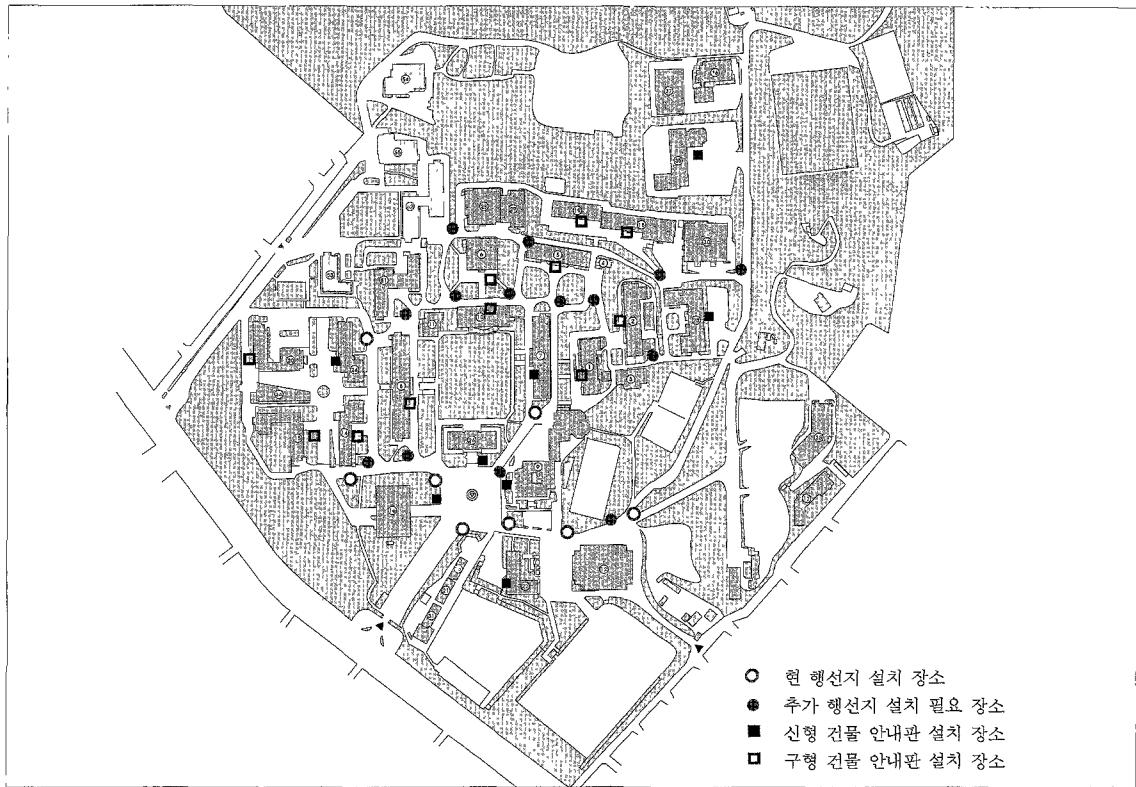
종 발생 한다.

본교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게 본교를 찾아 오게 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서비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편한 점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2. 대학 구내(區內) 안내

1) 대학 종합 안내판

방문자가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종합 안내판이다. 본 대학도 행정본관 앞에 설치는 되어 있으나(그림4) 정문쪽에서 진입하면 상징탑에 가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문자가 그 것을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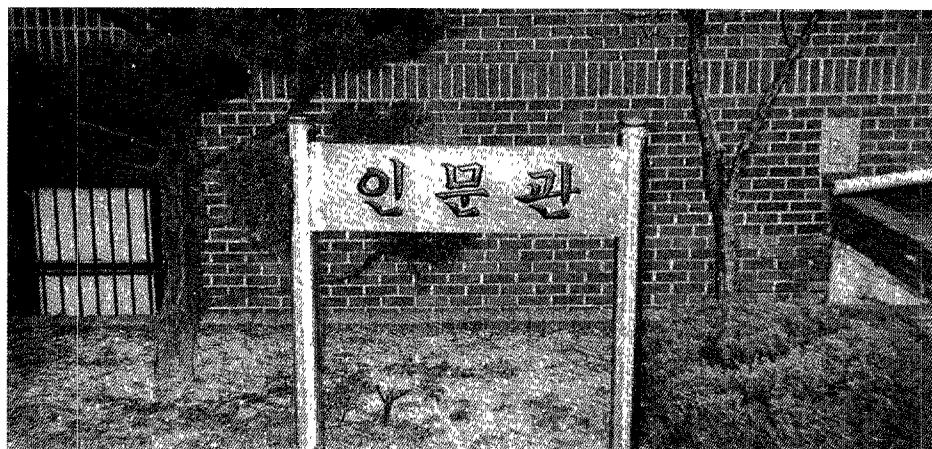


(그림7) 행선지 안내판 설치 장소와 건물 안내판 설치 장소 및 추가 설치 장소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은 표시가 되어 있으나 운동장 등의 공간들이 적혀있지 않고, 영문표기 또한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많은 차량이 방문할 때를 위한 추차장도 표시되어 있지않아 큰 행사때마다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여 일일이 유도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 대학 전체를 가이드할 수 있는 안내판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 종합 안내판은 본 대학을 방문하는 방문자의 눈에 가장 잘 떨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보행 방문자와 승용차 방문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는 정문 좌, 우가 가장 적합하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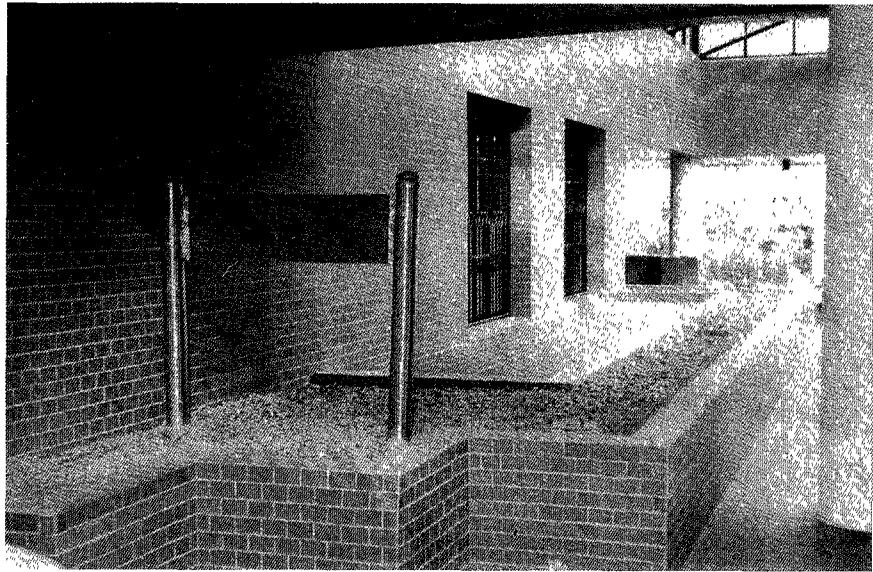
(그림8) 새로 설치한 건물 안내 표지판



(그림9) 구형 건물 안내 표지판



(그림10) 규정없이 제 각각 설치한 구형 건물 안내 표지판



(그림11) 길에서 볼 수 없게 반대방향으로 설치한 건물 표지판 / 문수관

2) 행선지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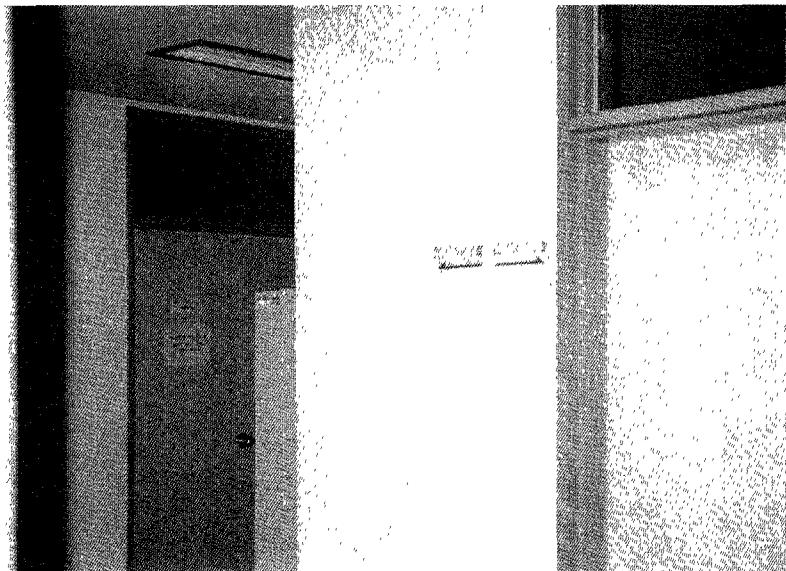
본 대학의 행선지(이정표) 안내는 그림6과 같은 형태로 모두 8곳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의 8곳 외에 14곳에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그림7 참조) 현재의 안내 표지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표지판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건물 안내판

방문자가 목적한 건물까지 정확히 도착했는지 알 수 있는 건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 현관에서 최종 목적지가 몇 층 몇 호실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나 행정본관 주변에는 그림8과 같이 새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 번호와 영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안내판의 높이나 글씨의 자간 등이 울산대학교 이미지통합계획 매뉴얼과 다르게 제각각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은 나무판에 세겨진 예전의 안내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보완된 안내판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다. 그리고 건물내에 입주한 부서들의 간판도 제각각 부착되어 있거나 실제의 건물명과 다르게 부착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그림9, 10, 11)

4) 각 층 별 안내판

현재 건물마다 1층 현관에 각 층 별 부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층에 도착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층 별 세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림12와 같이 계단 입구 주변 적당한 곳에 일정한 규칙이 없이 호실만 표기한 작은 아크릴판은 부착되어 있으나 찾아내어 확인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 층 별 계단 입구와 엘리베이터 전면에 층 별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자가 어느 쪽으로 접근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림12) 현행 각 층 별 안내 표지판

3. 효과적인 안내 시스템 개발

모든 교내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적용했다. 첫째 모든 칼라는 본 대학 이미지 컬러를 기본적으로 적용했다. 둘째 본 대학의 상징인 로고, 마크를 넣었다. 셋째 영문 표기를 병행하였으며, 넷째 행선지 안내판과 건물 표시 안내판에는 종합 안내판에 적용한 평면도를 넣어 현재의 위치와 다음 행선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4가지 사항을 통일시켰다. 안내 시스템 적용은 조형관(6호관), 예술관(28호관, 29호관)과 그 주변을 사례로 들었다.

3-1. 종합 안내

본 대학 종합 안내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 표기를 병행하였으며 승용차 등의 차량으로 방문하는 방문자를 위해서 주차장 위치를 표시하였다. 건물 번호와 건물 명칭을 표기하였으며 현재의 종합 안내판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운동장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도 표기하였다.(그림13, 14) 종합 안내판은 정문 좌, 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우측 설치 장소는 그림5와 같이 수 위실 벽면에 부착하고, 좌측 설치 장소는 좌측 기둥 옆에 우측과 같은 높이와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방문자가 좌우측 어느쪽으로 접근하더라도 쉽게 눈에 띠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행선지 안내

현재의 행선지 안내 표지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았다. 좌측, 진행, 우측 방향의 순으로 건물 안내를 표기하였으며 건물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표시함으로서 둘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어디에서든지 목적지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단에 종합 안내도를 축소하여 넣고 현재 위치를 표시하였다.(그림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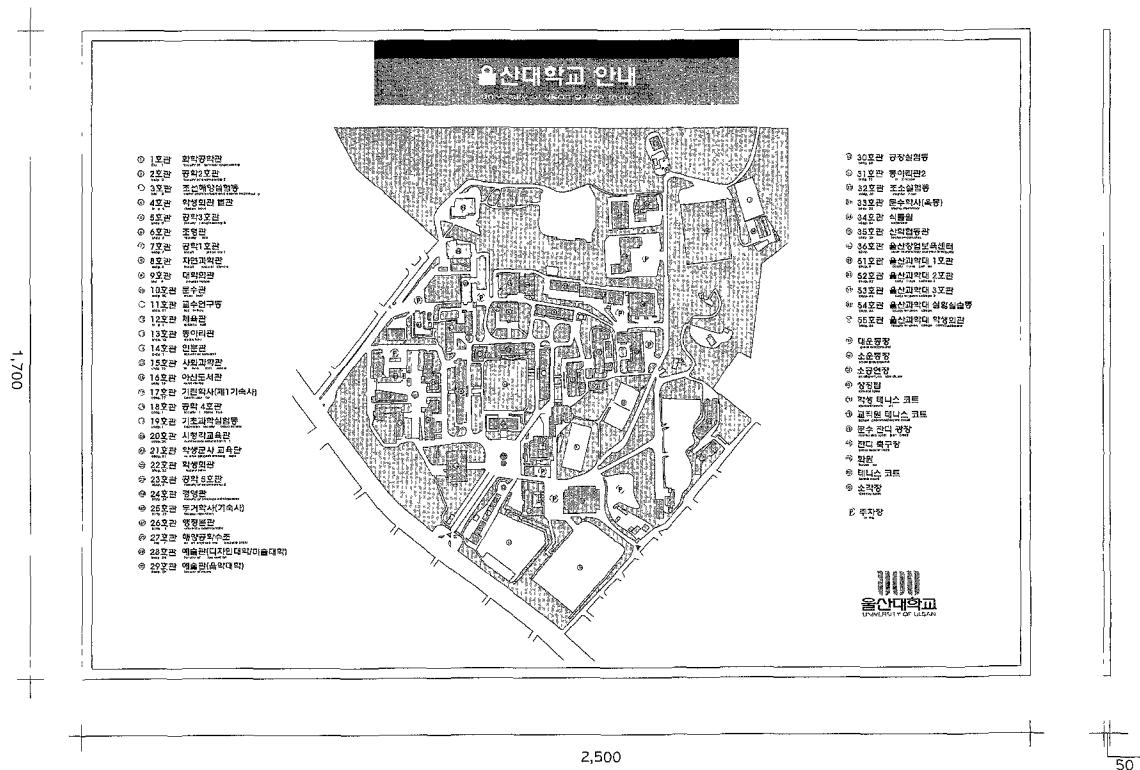
현재 설치된 장소를 포함해서 22곳의 장소에 설치가 필요하다(그림7 참조).

3-3. 건물 표시 안내

현재 건물에 부착한 새 건물 표지판은 그 형태나 위치면에서 잘 적용되어 있으나 영문표기와 건물 번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나 건물 번호만을 알고 방문하는 방문자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건물에 부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명을 표시하는 부착형으로서의 기능으로 두고 그것 외에 건물 주 입구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건물명과 건물번호,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단위 부서나 연구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리된 표지판으로 디자인 했다. 건물 앞과 뒤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양쪽 모두 안내판을 설치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그림20~26)

3-4. 건물 내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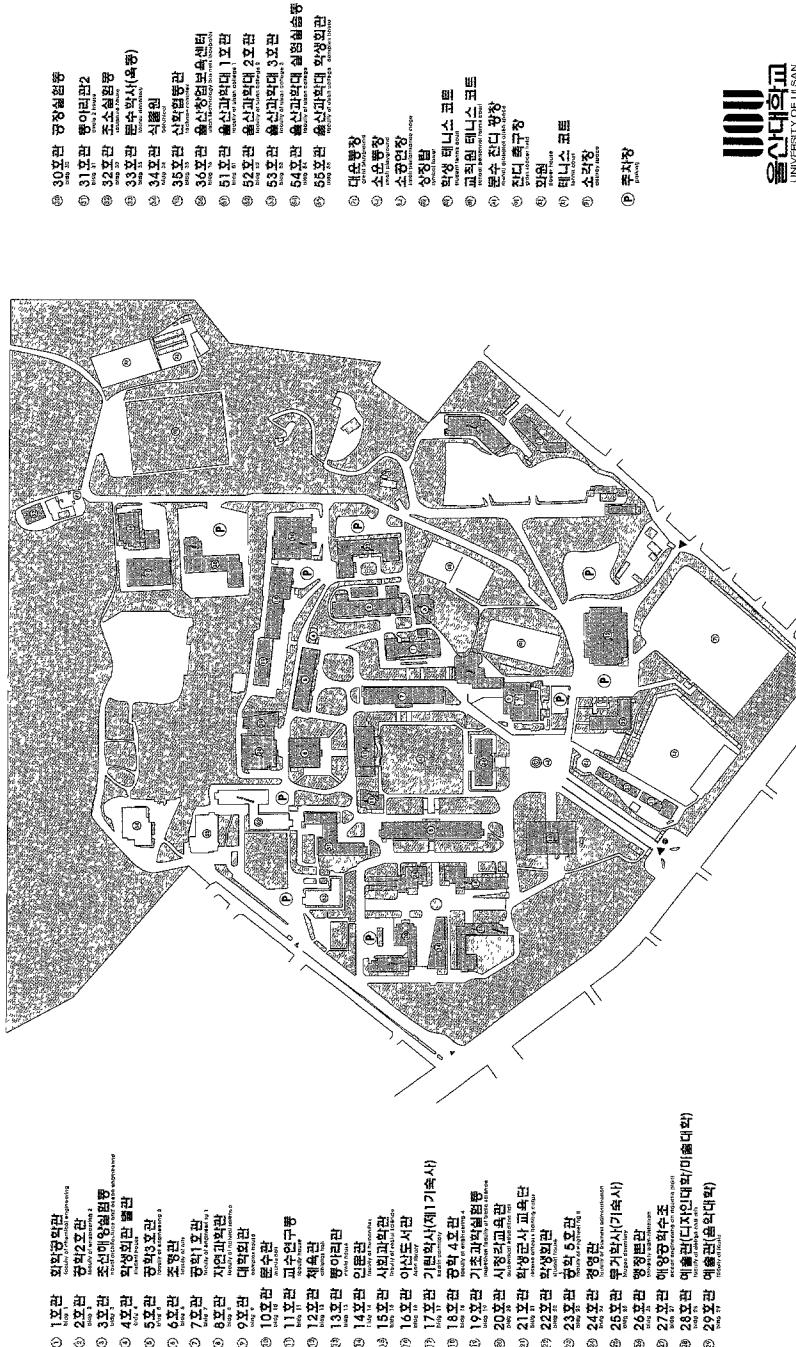
각 층 별 평면도를 넣어서 각 호실 번호와 비교하여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재의 위치도 표시하였다.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은 건물 전체를 알 수 있게 하여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다. 또한 층 별 안내판은 각 층 계단 입구와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전면에 부착하여 어느 쪽으로 접근하더라도 목적지를 쉽게 찾아 낼 수 있게 한다. 1층의 경우는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과 1층 안내판을 같은 위치에 부착하여 정리시킨다. (그림2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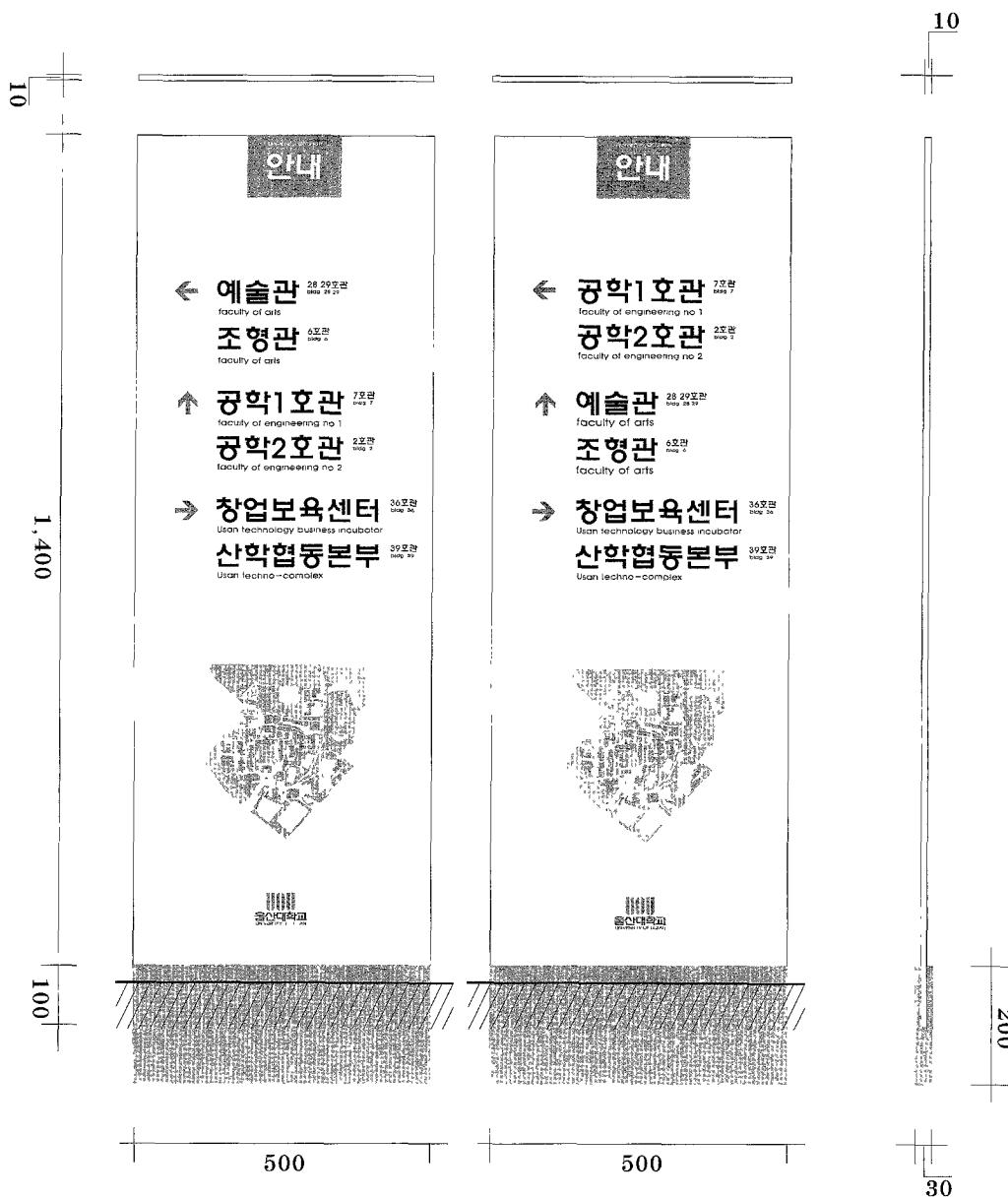
(그림13) 대학 종합 알내화 규격

을산대학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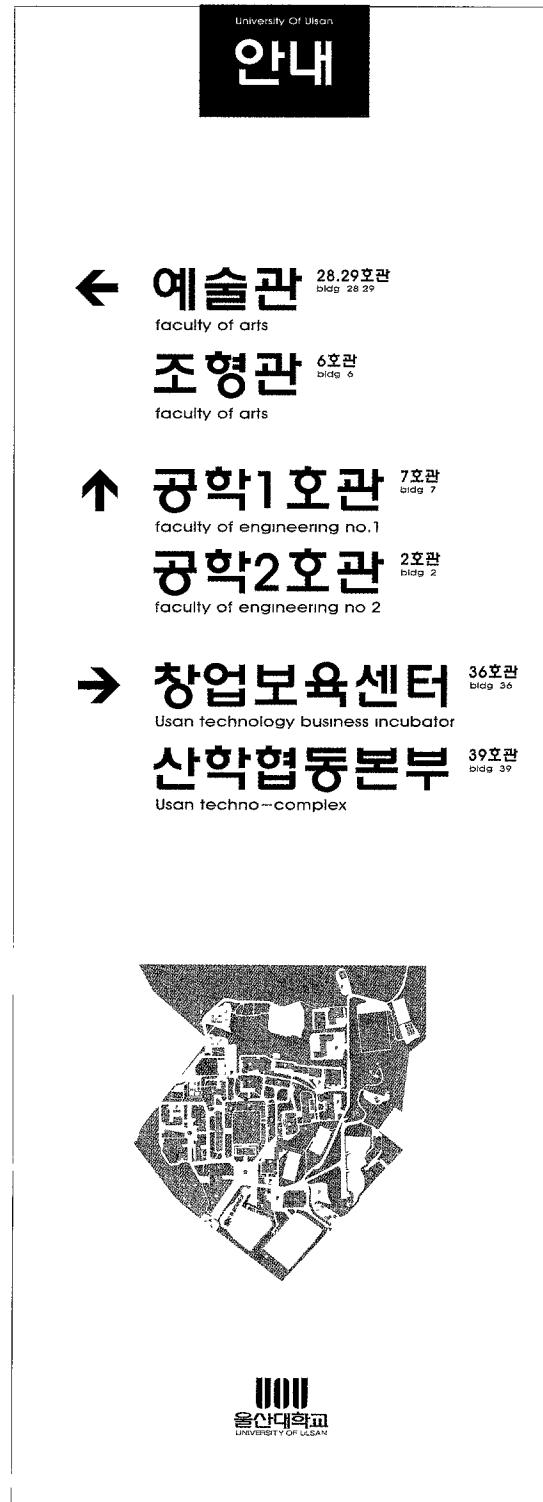
university of ulsan guid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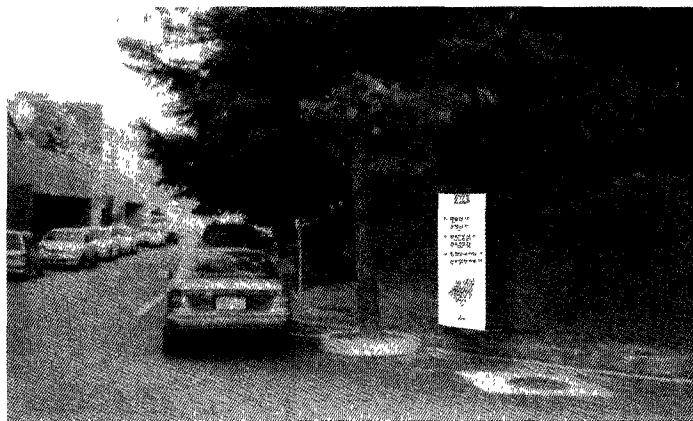
(그림14) 대학 종합 안내판



(그림15) 행선지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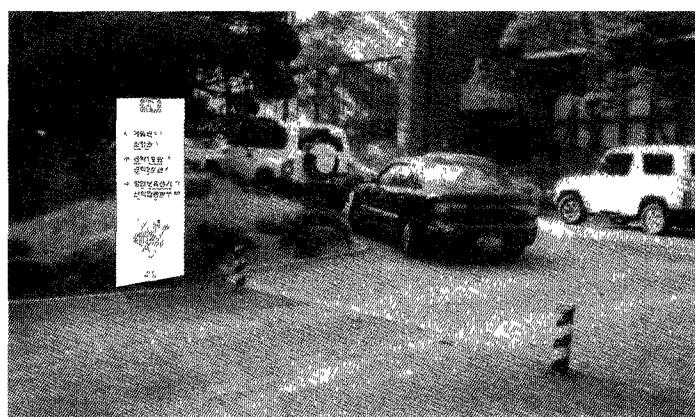
(그림16) 행선지 안내판



(그림17) 행선지 표지판 적용 애 / 조형관 우측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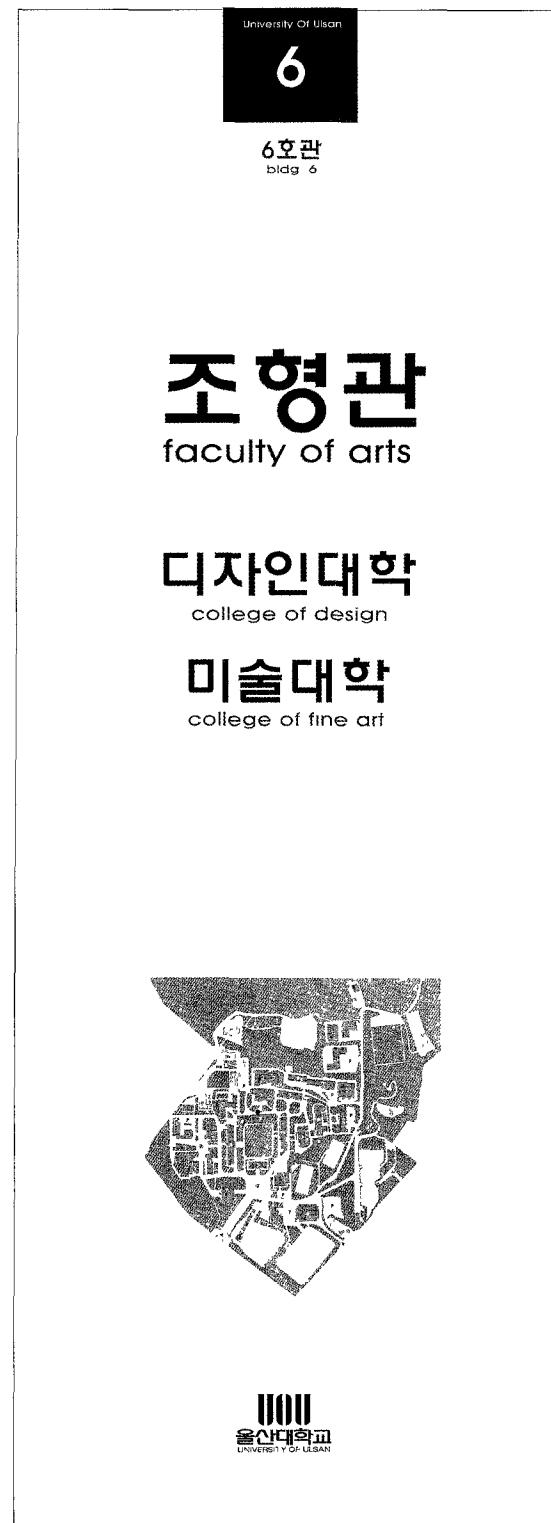
(그림18) 행선지 표지판 적용 애 / 음대 앞, 공학 3호관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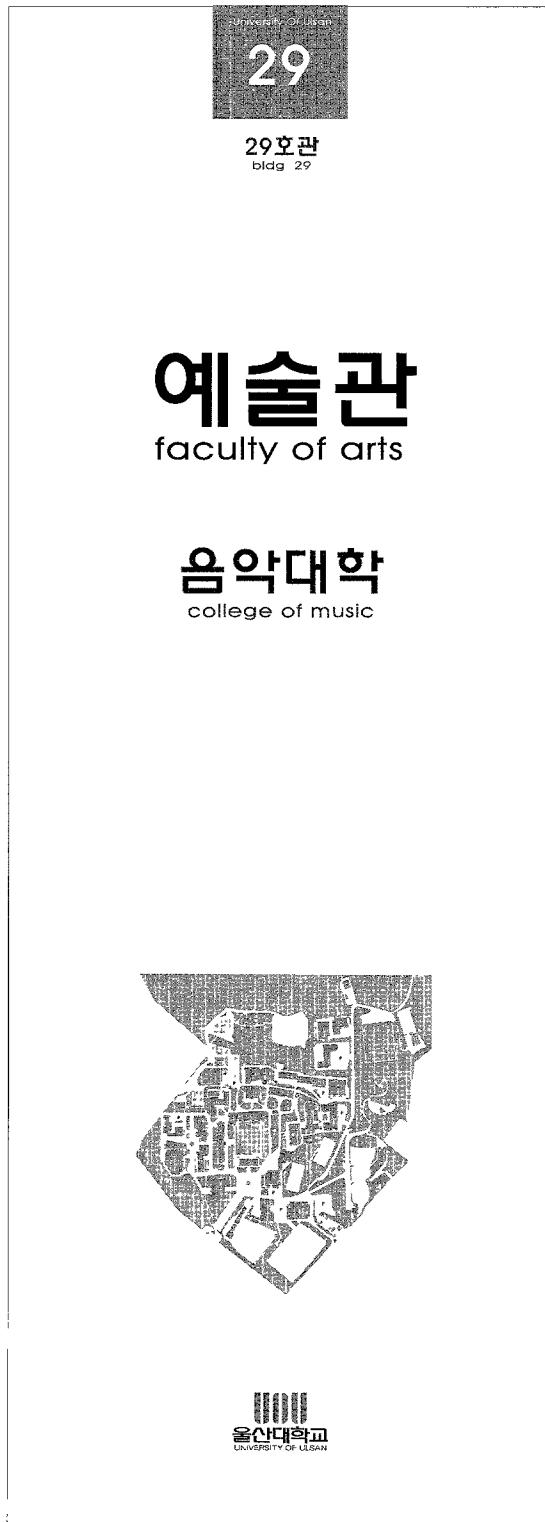
(그림19) 행선지 표지판 적용 애 / 예술관, 전문대학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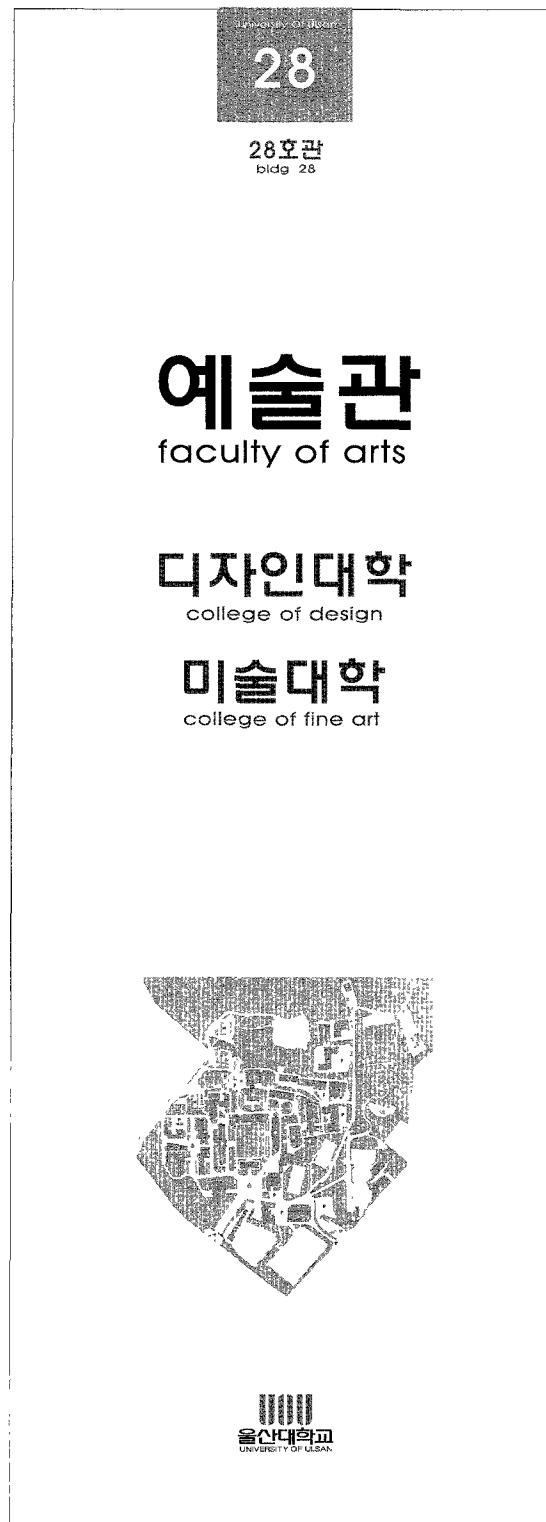
(그림20) 건물 안내판 규격/ 예술관, 조형관



(그림21) 건물 안내판 / 6호관 조형관



(그림22) 건물 안내판 / 29호관 예술관



(그림23) 건물 안내판/ 28호관 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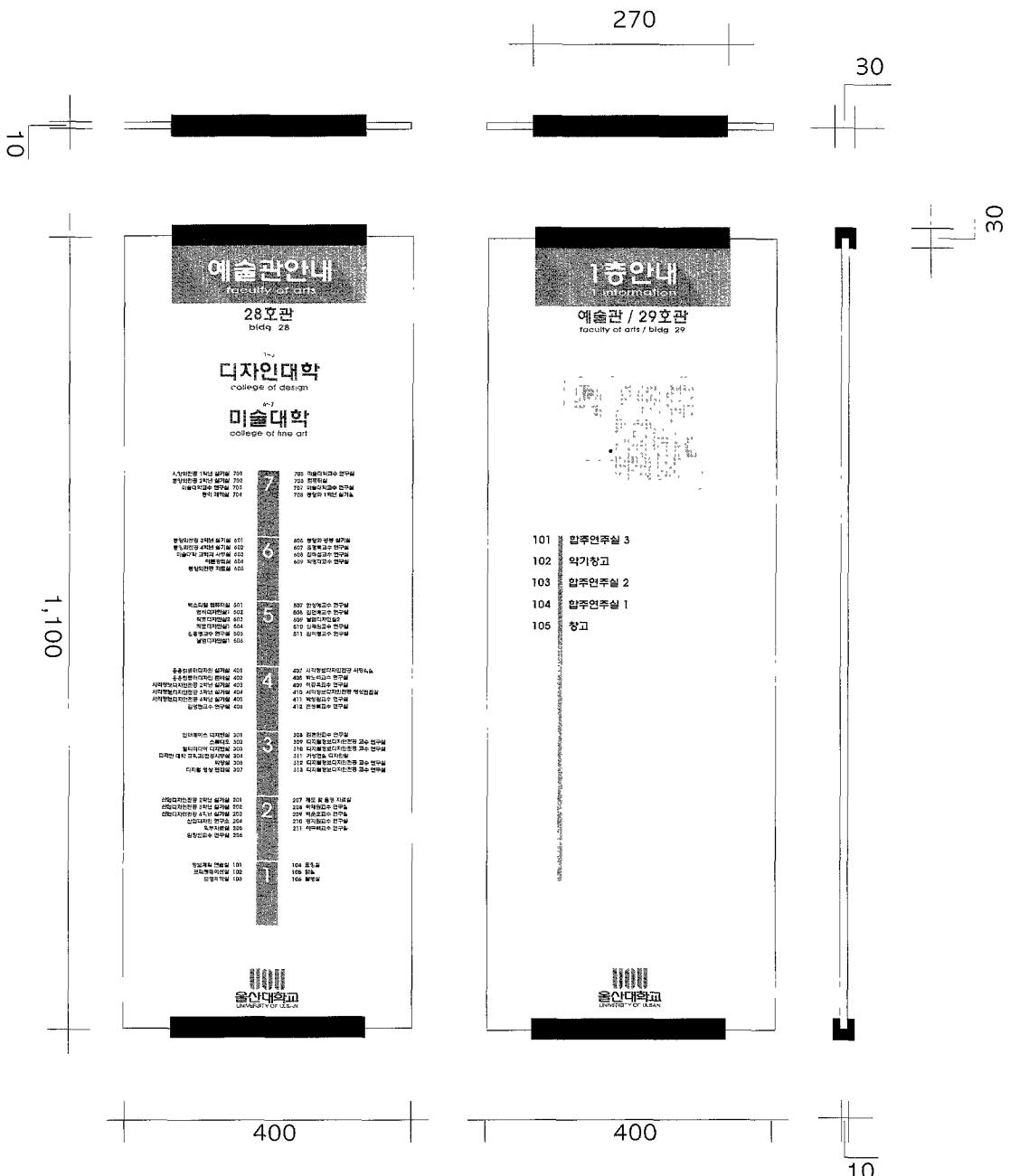
(그림24) 건물 안내판 적용 예/ 28호관 예술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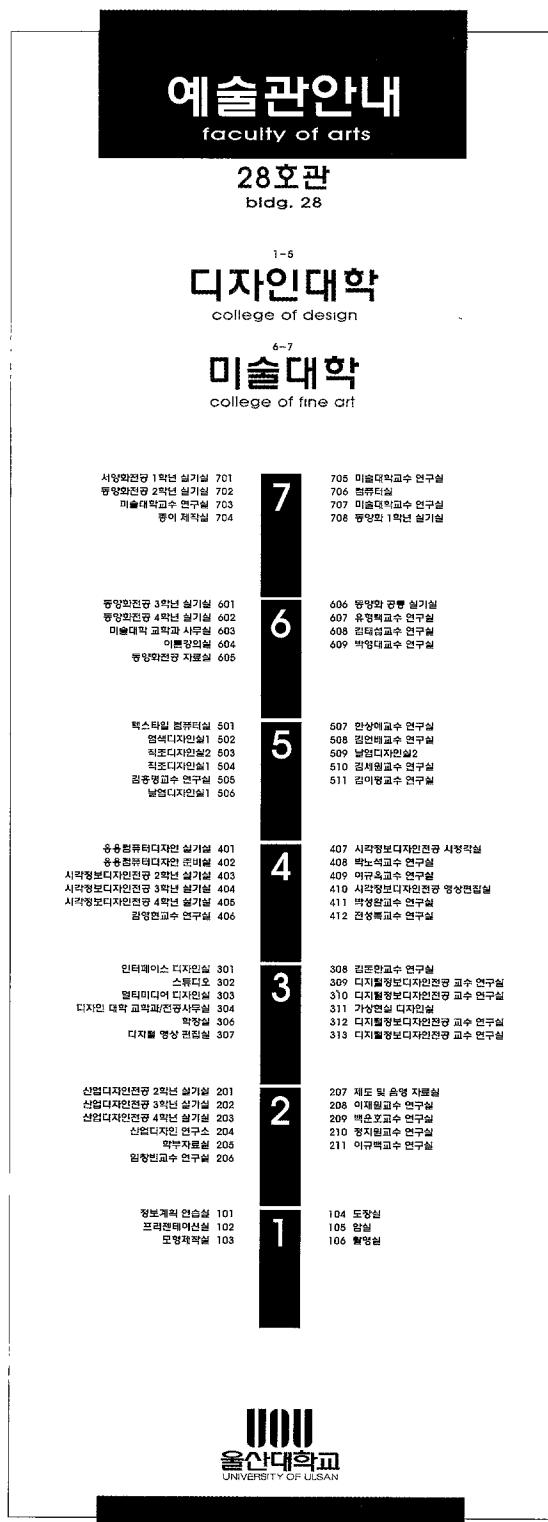
(그림25) 건물 안내판 적용 예/ 6호관 조형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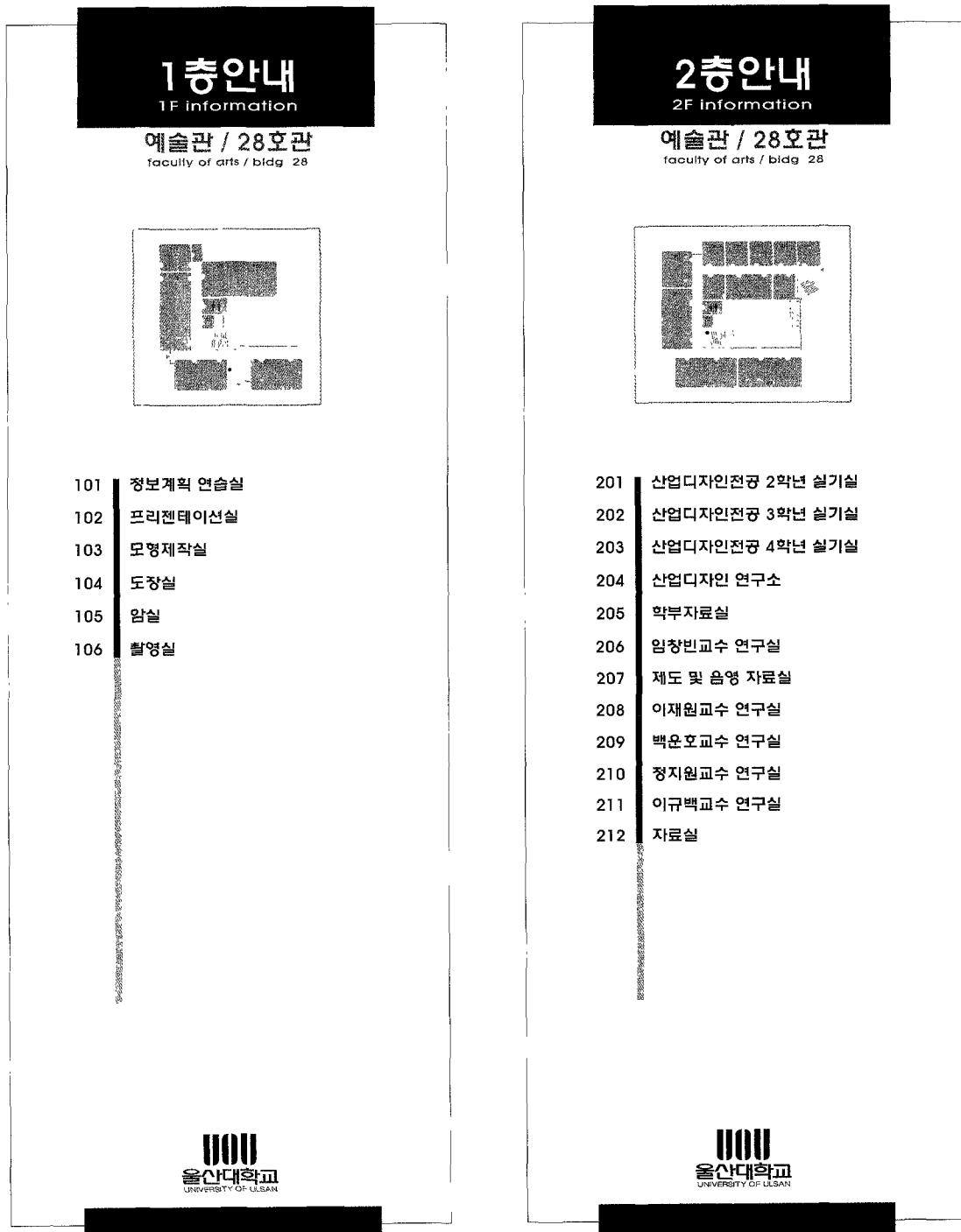
(그림26) 건물 안내판 적용 예/ 29호관 예술관 (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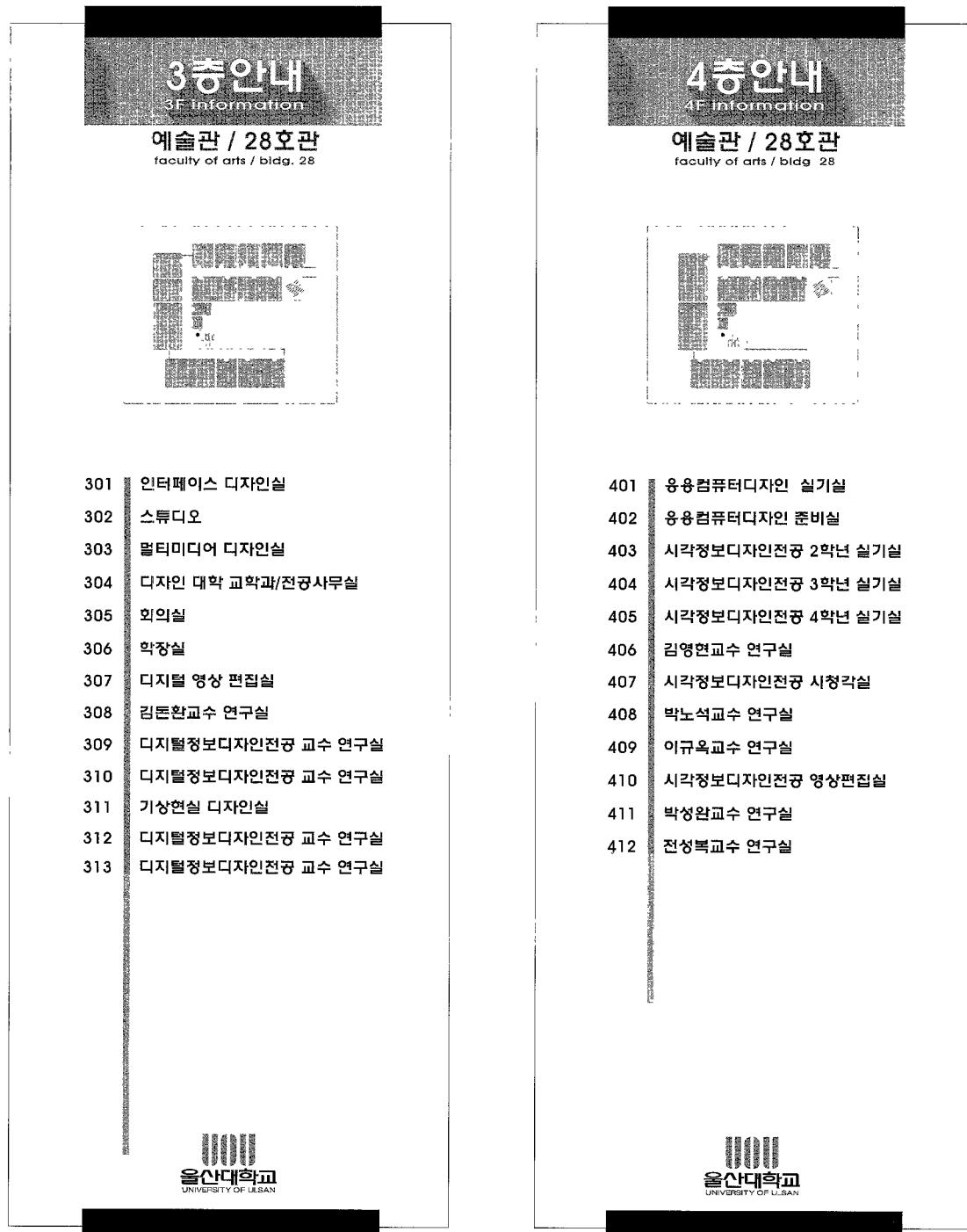
(그림27) 건물 내부 안내판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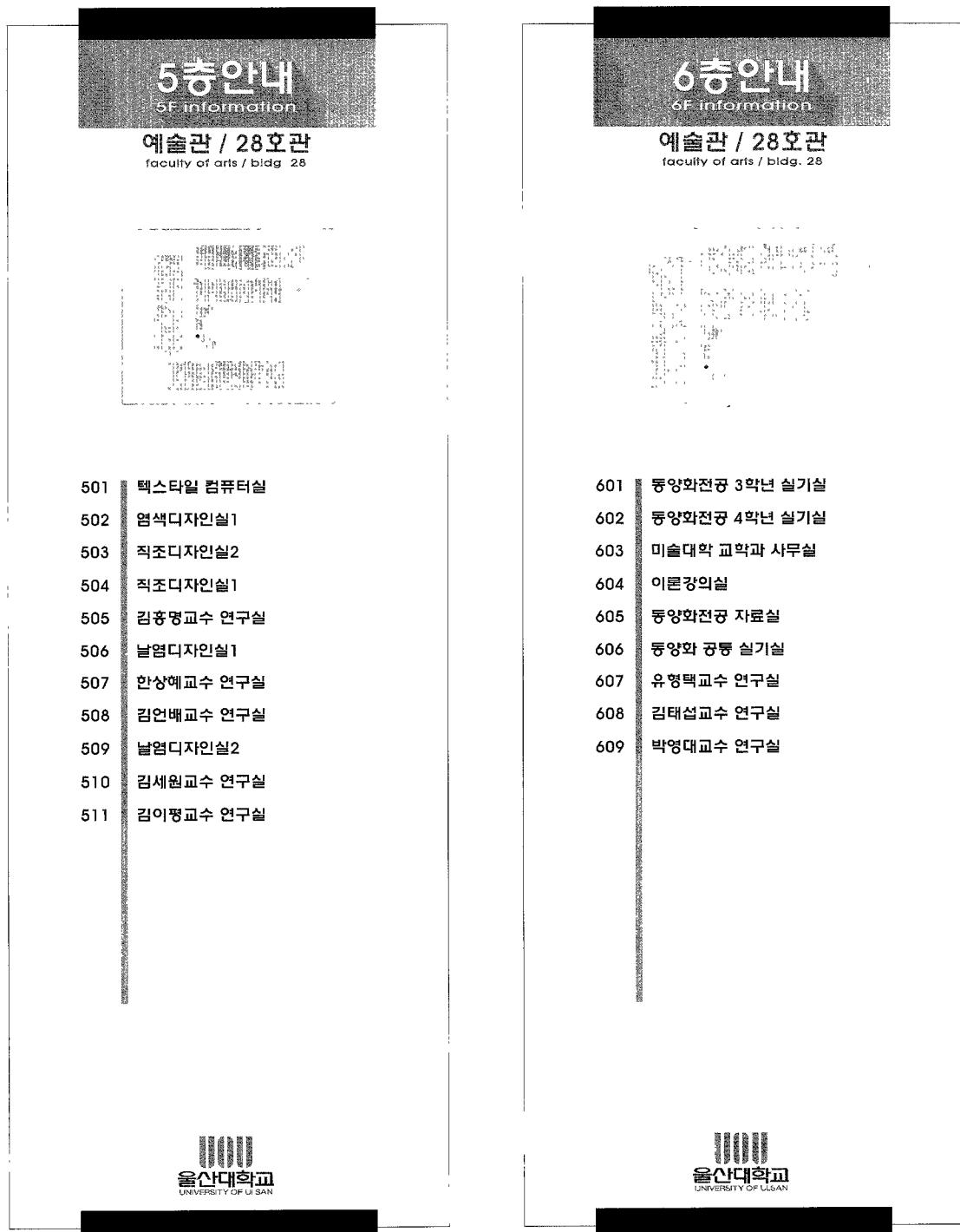
(그림28)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 28호관 예술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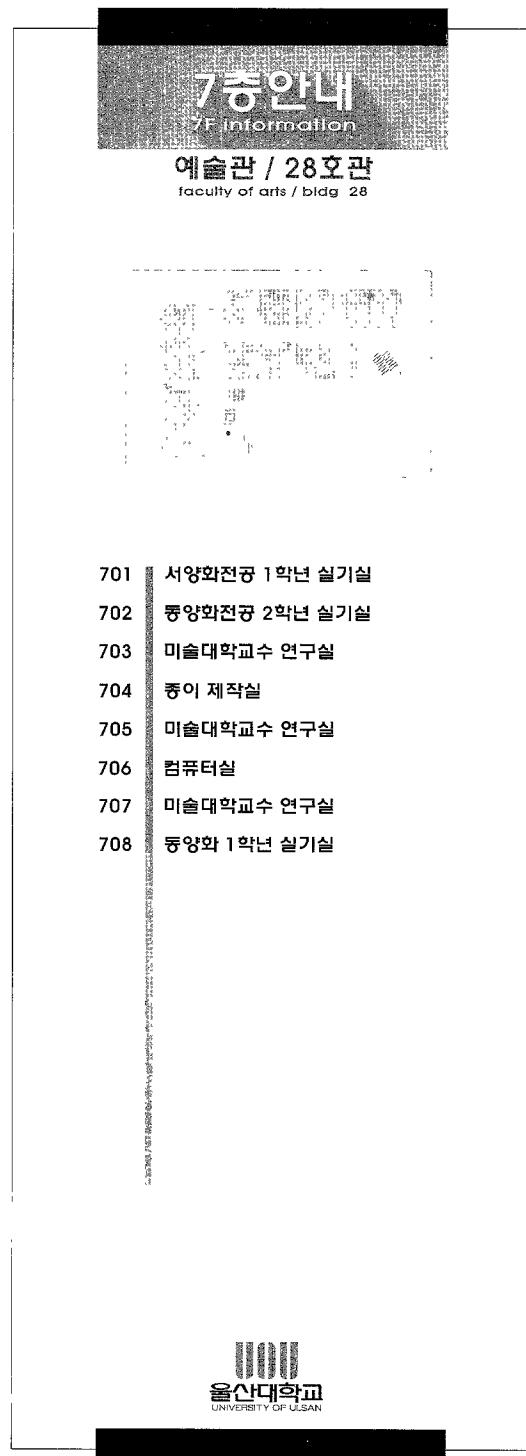
(그림29)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8호관 예술관 1, 2층 (디자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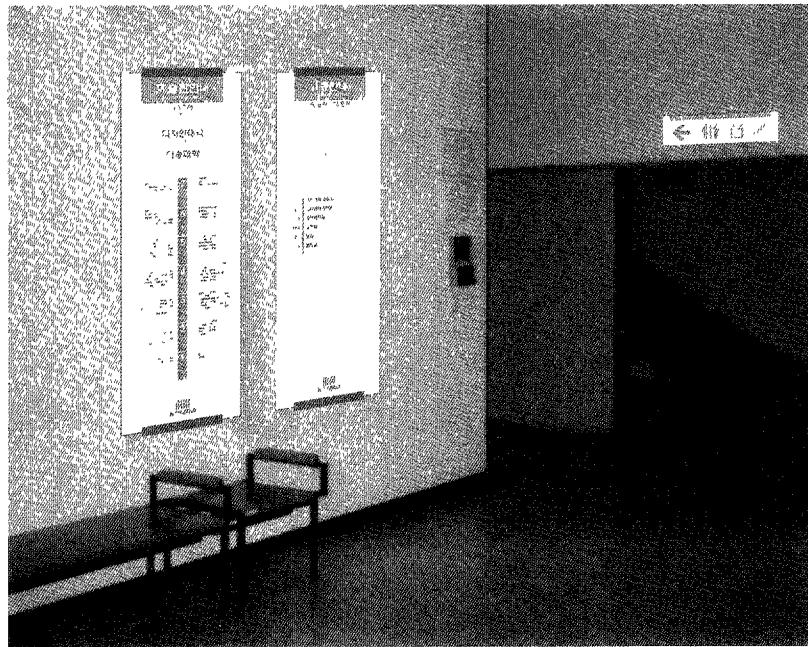
(그림30)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8호관 예술관 3, 4층 (디자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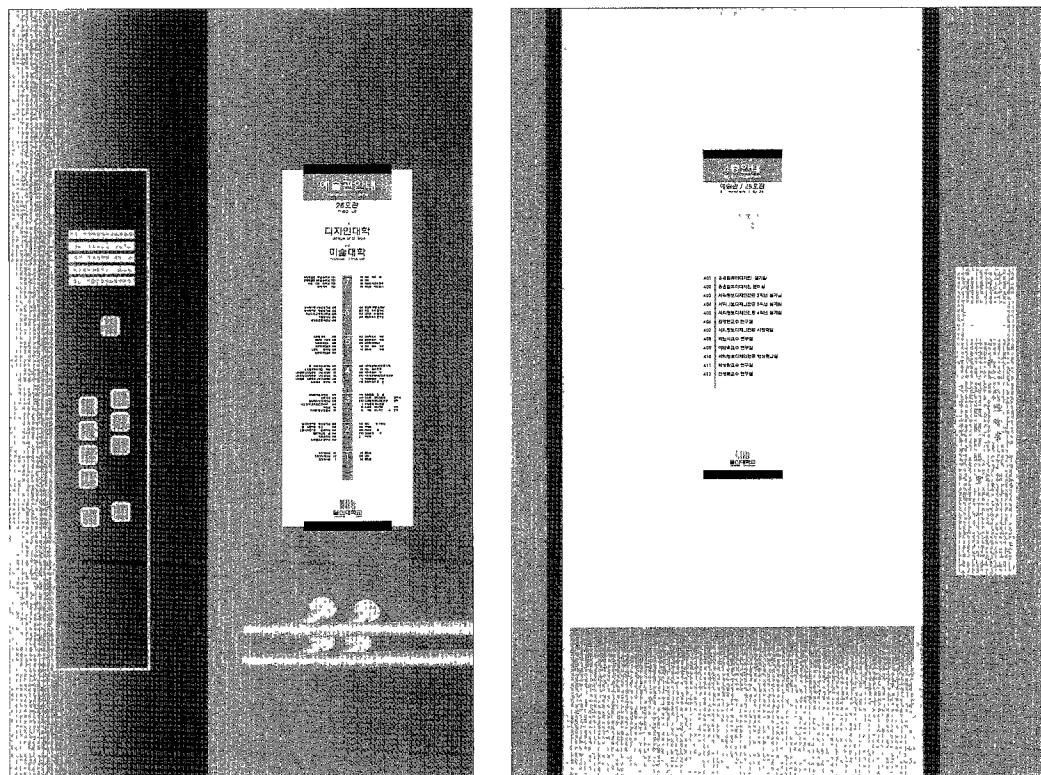
(그림31)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8호관 예술관 5층(디자인대학), 6층(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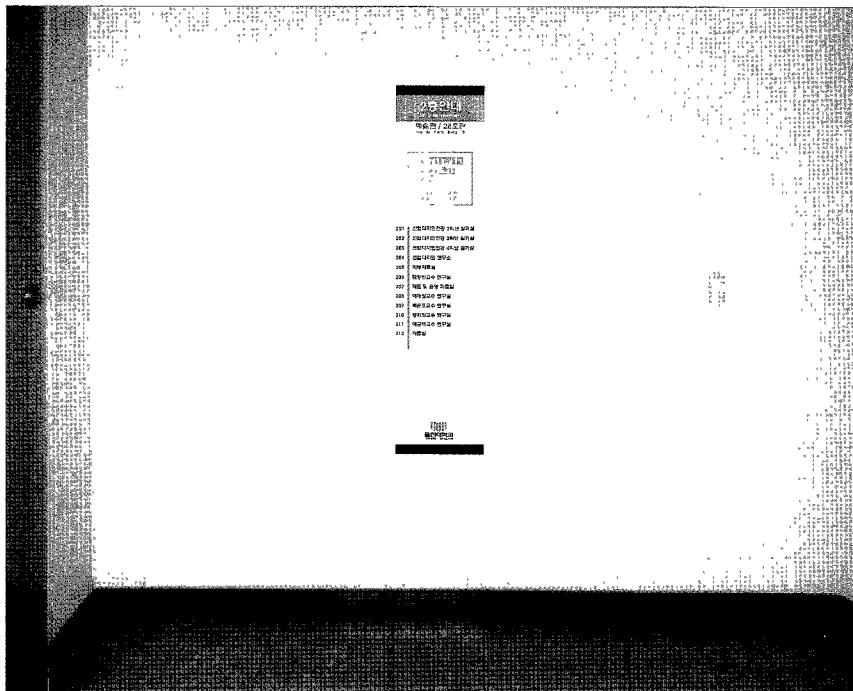
(그림32)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8호관 예술관 7층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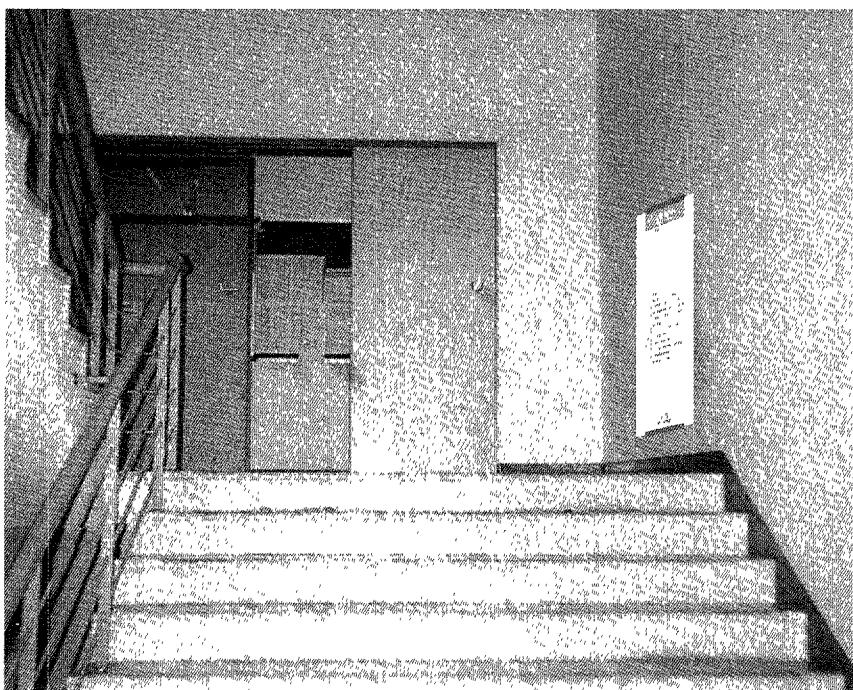
(그림33)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 및 1층 안내판, 시설물 이용 사인 적용 예
28호관 예술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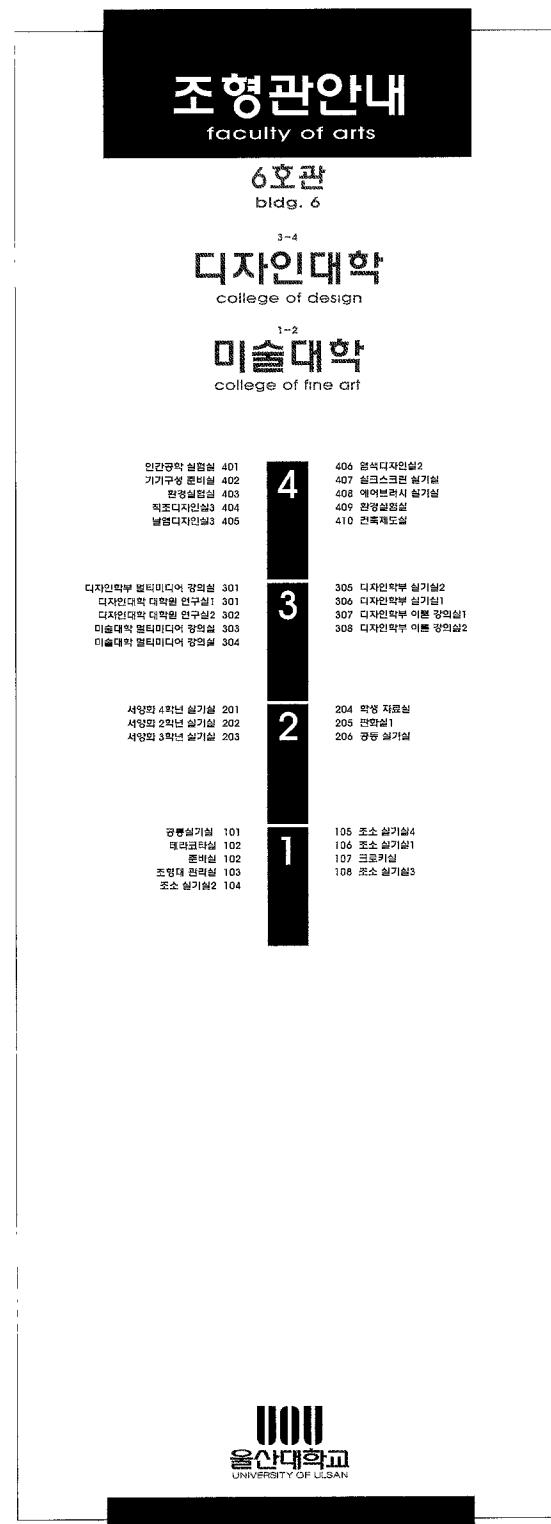
(그림34) 엘리베이터 내부(왼쪽)와 각 층 엘리베이터 전면(오른쪽)에 안내판 적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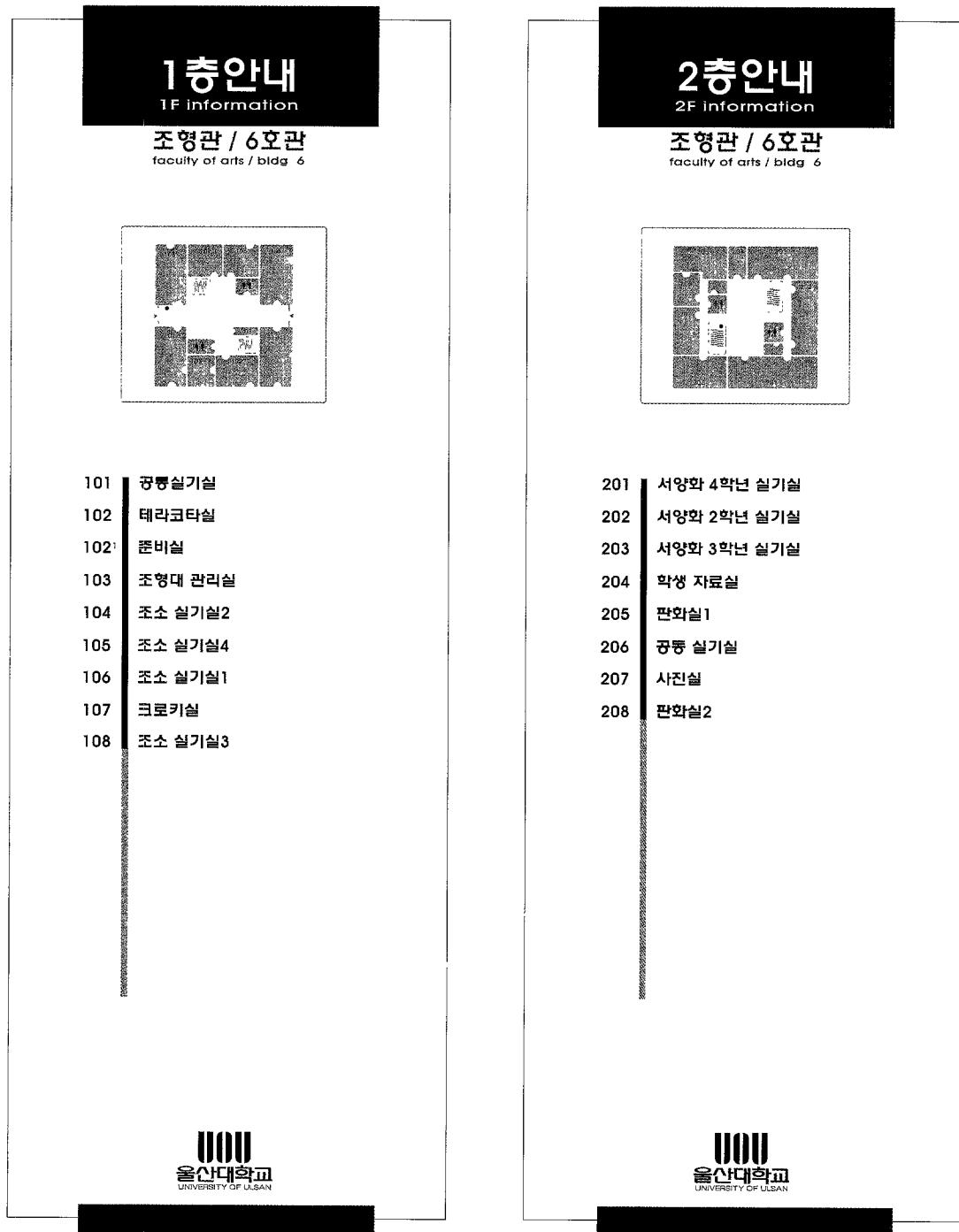
(그림35) 층 별 안내판 적용 예(정면에서 보기)
28호관 예술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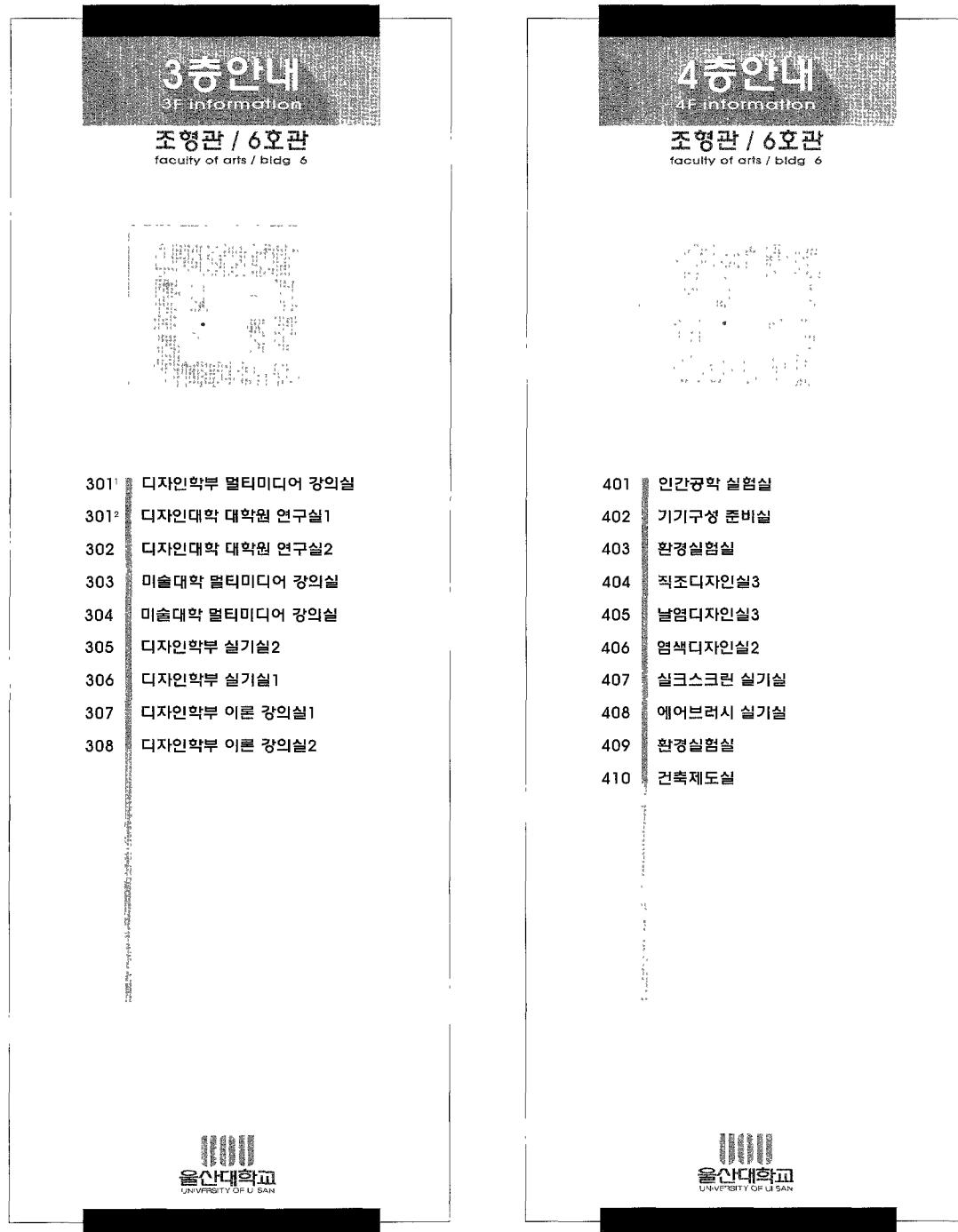
(그림36) 층 별 안내판 적용 예(계단에서 보기)
28호관 예술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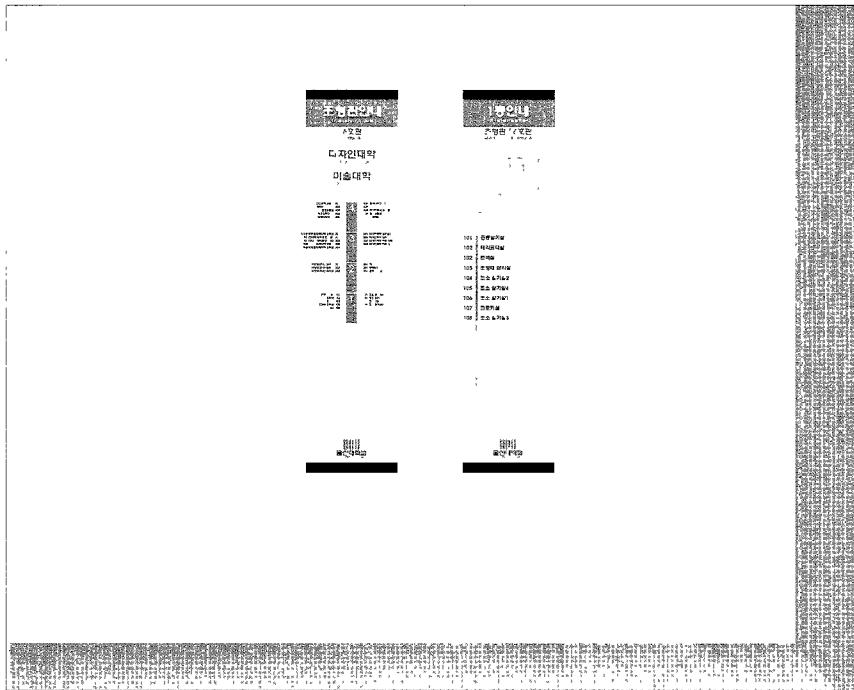
(그림37)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 6호관 조형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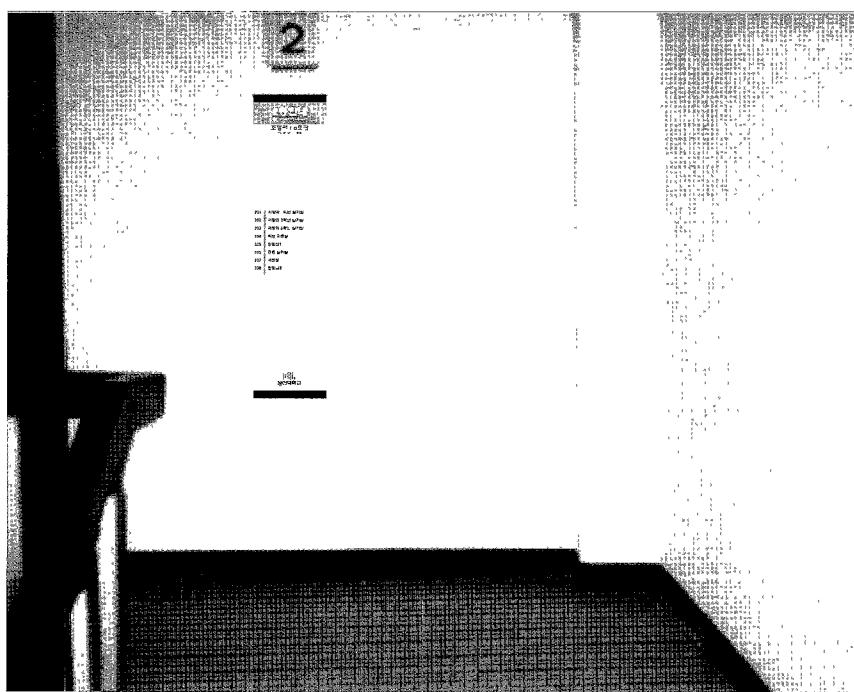
(그림38)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6호관 조형관 1, 2층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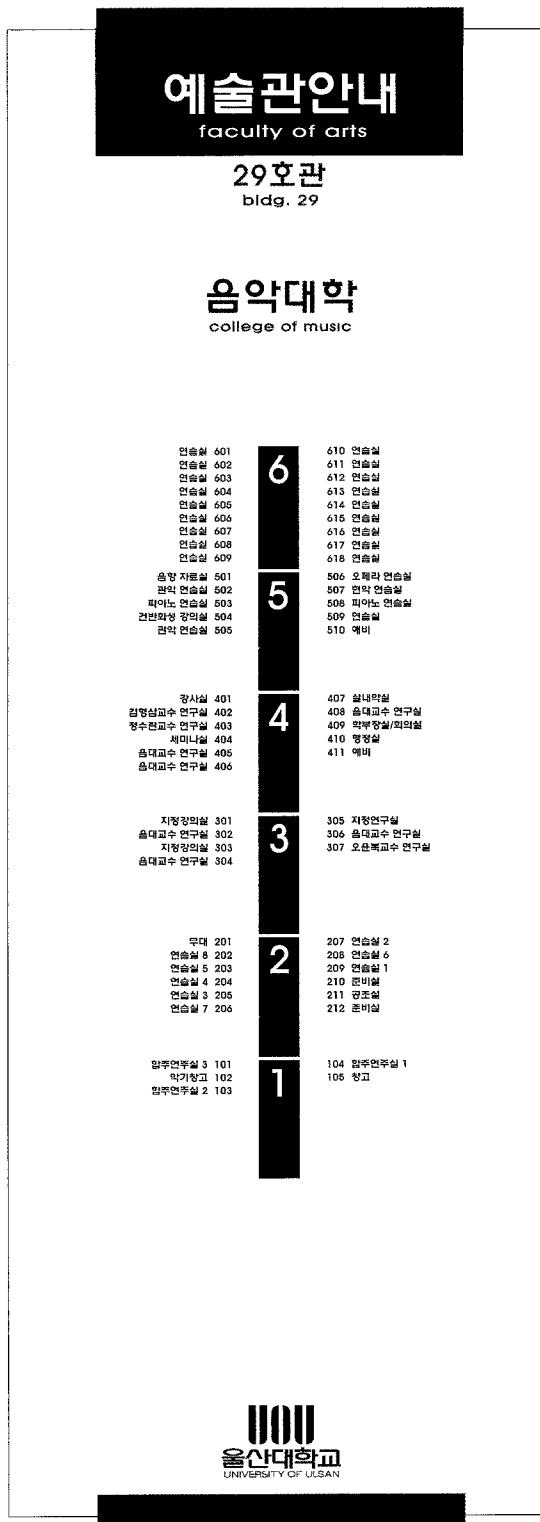
(그림39)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6호관 조형관 3, 4층(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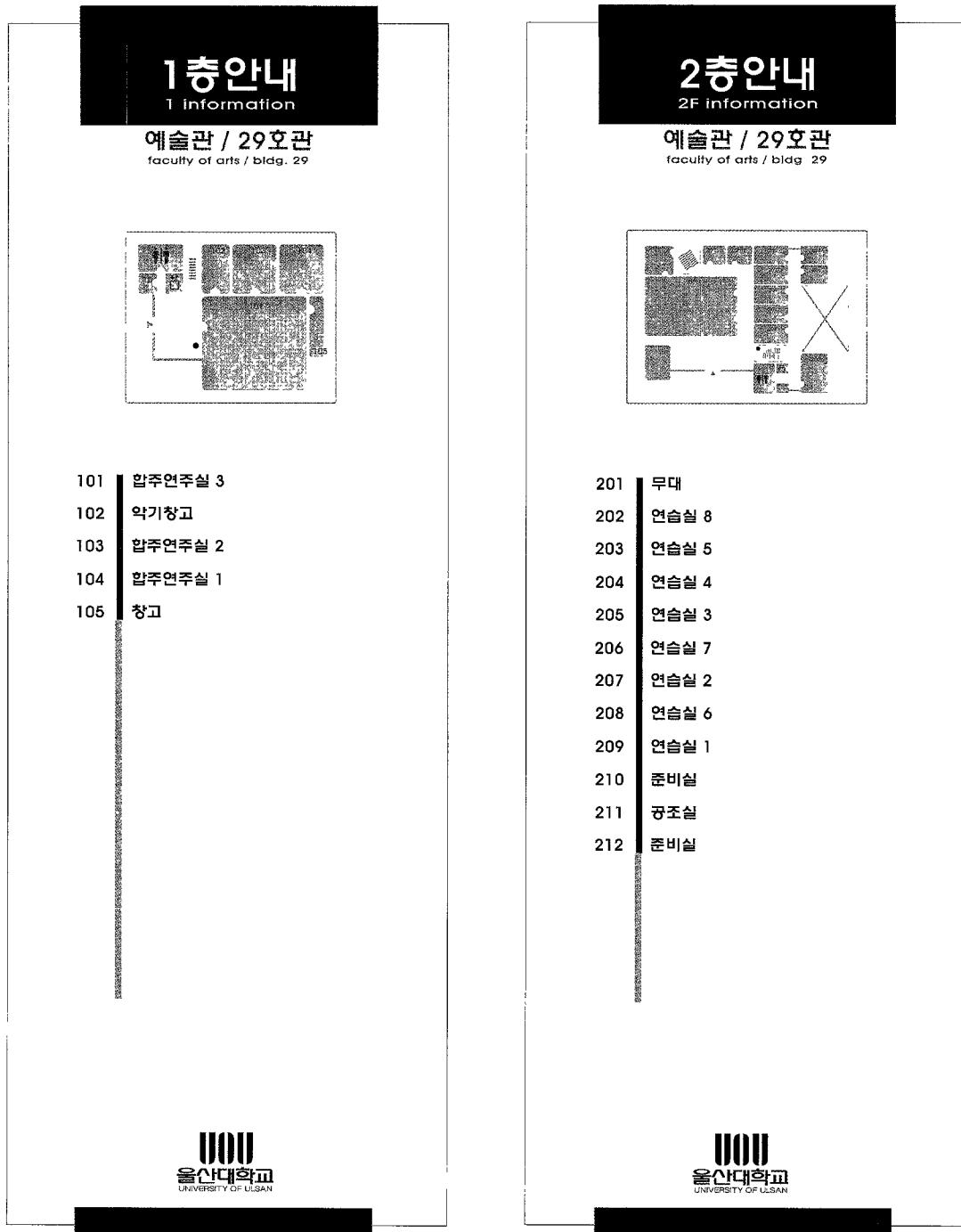
(그림40)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 및 1층 안내판 적용 예
6호관 조형관 (디자인대학, 미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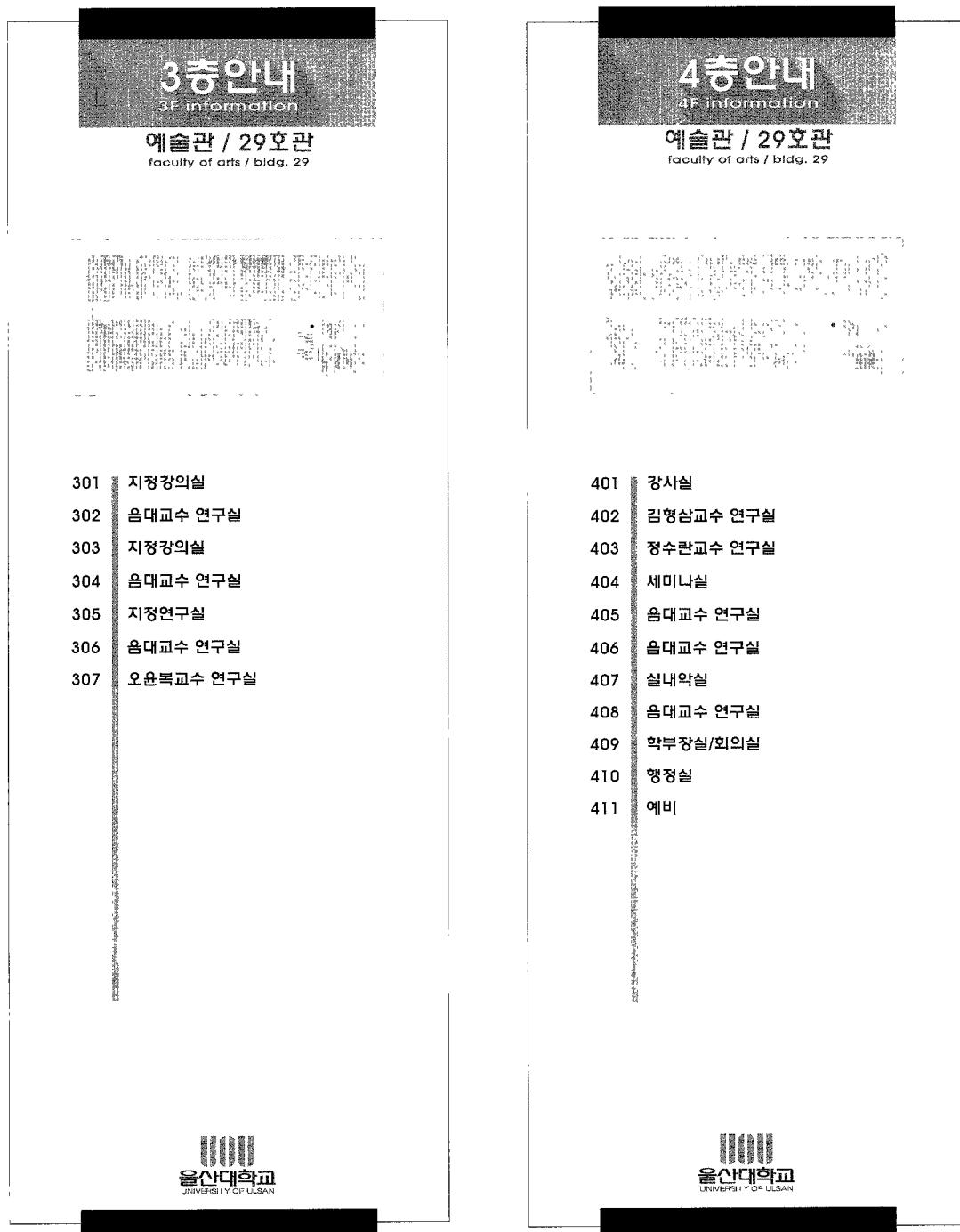
(그림41)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6호관 조형관 적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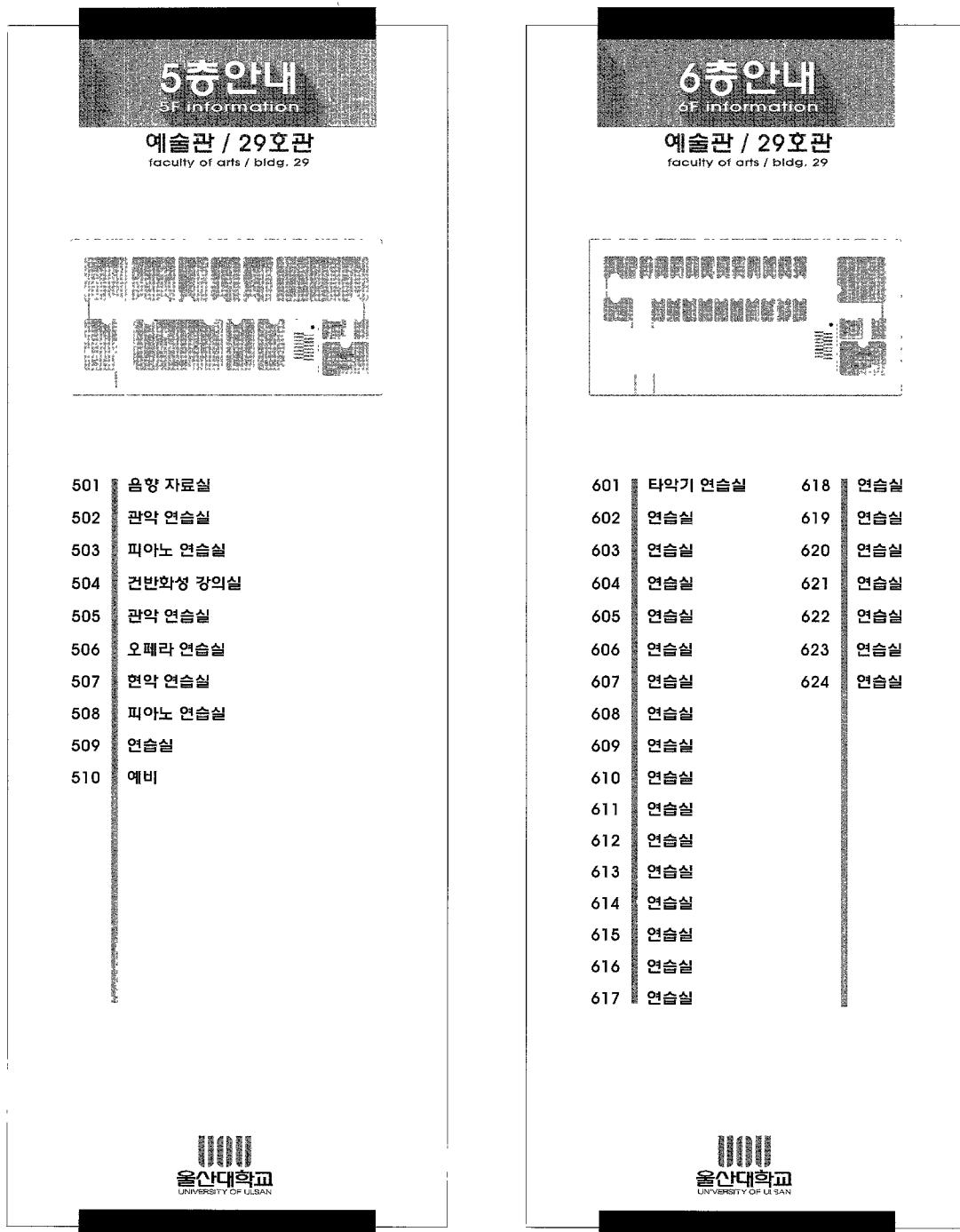
(그림42)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 29호관 예술관 (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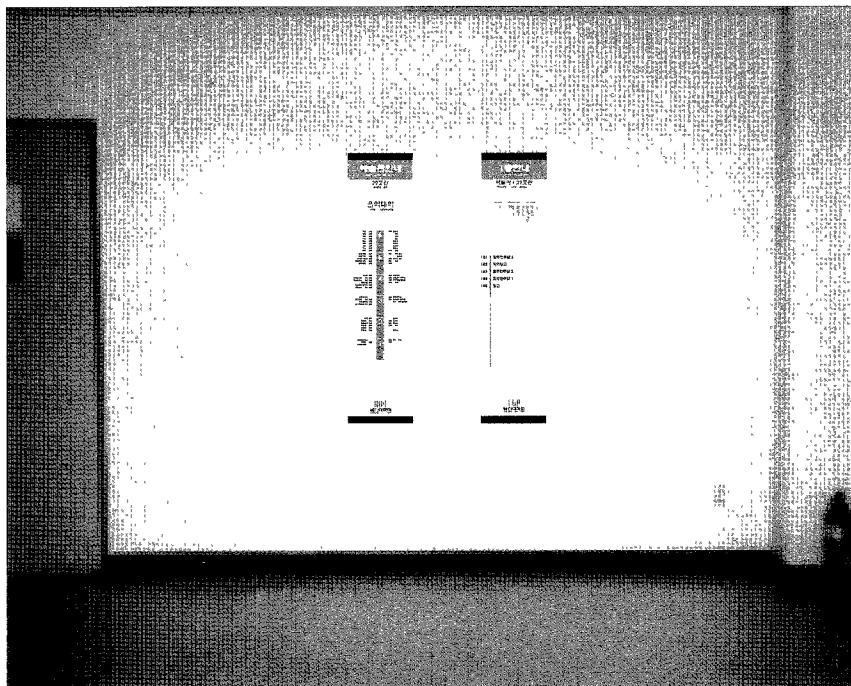
(그림43)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9호관 예술관 1, 2층(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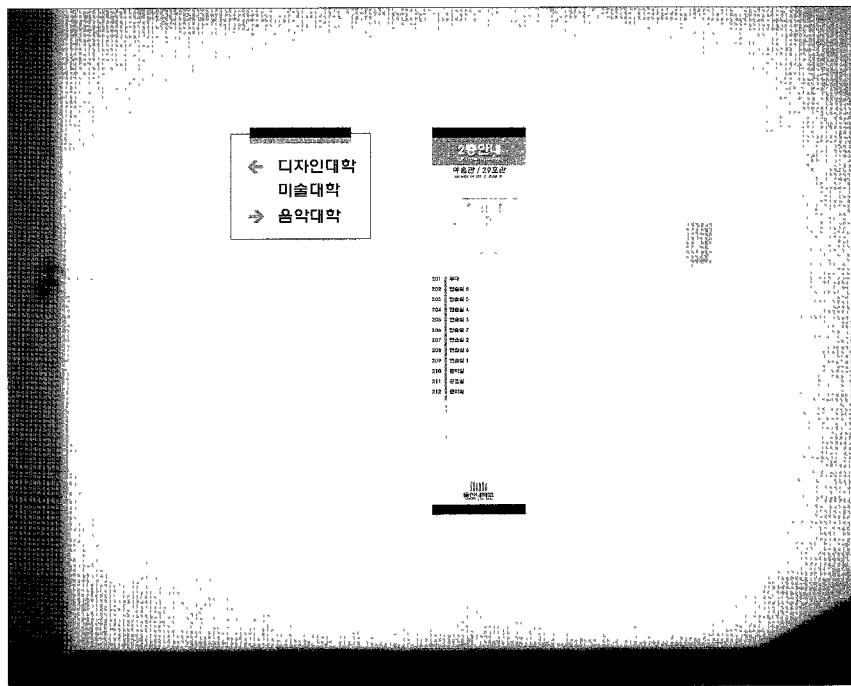
(그림44)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9호관 예술관 3, 4층(음악대학)



(그림45) 건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9호관 예술관 5, 6층(음악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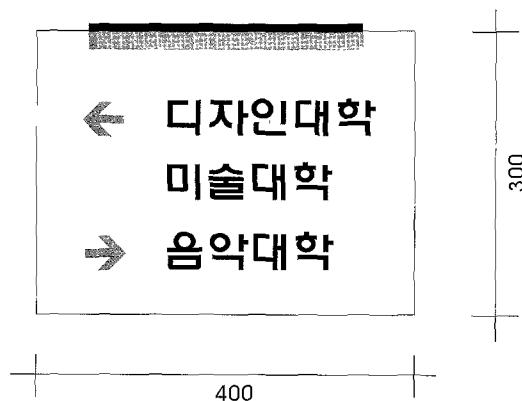
(그림46) 건물 내부 종합 안내판 및 1층 안내판 적용 예
29호관 (음악대학)



(그림47) 전물 내부 층 별 안내판/ 29호관 음악대학(1, 2층 사이)
음악대학과 디자인대학, 미술대학을 구분하는 사인이 필요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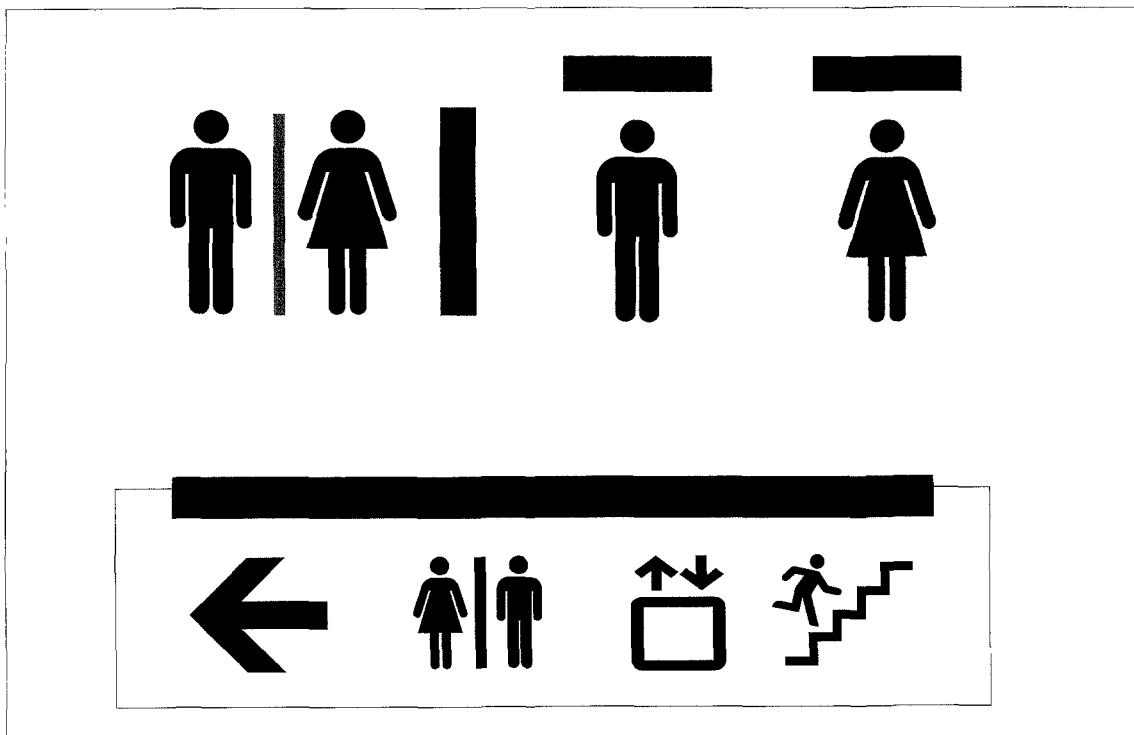
(그림48) 층 별 안내판 적용 예 / 3층부터 (계단쪽에서 보기)
29호관 예술관 (음악대학)



(그림49) 음악대학과 디자인대학, 미술대학을 구분하는 사인 규격.

3-5. 건물 내부 편의시설 안내

본 대학은 건물 내의 편의 시설물이나 긴급 대피용 안내 시스템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늘 상주하는 구성원은 알고 있으나 처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화장실 하나까지도 물어서 찾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더욱이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때를 위한 고려가 전무한 상태이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형식적인 안내 시스템만을 해놓은 인상이 짙다. 사인 시스템도 대학내의 모든 안내 시스템과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그림33, 그림5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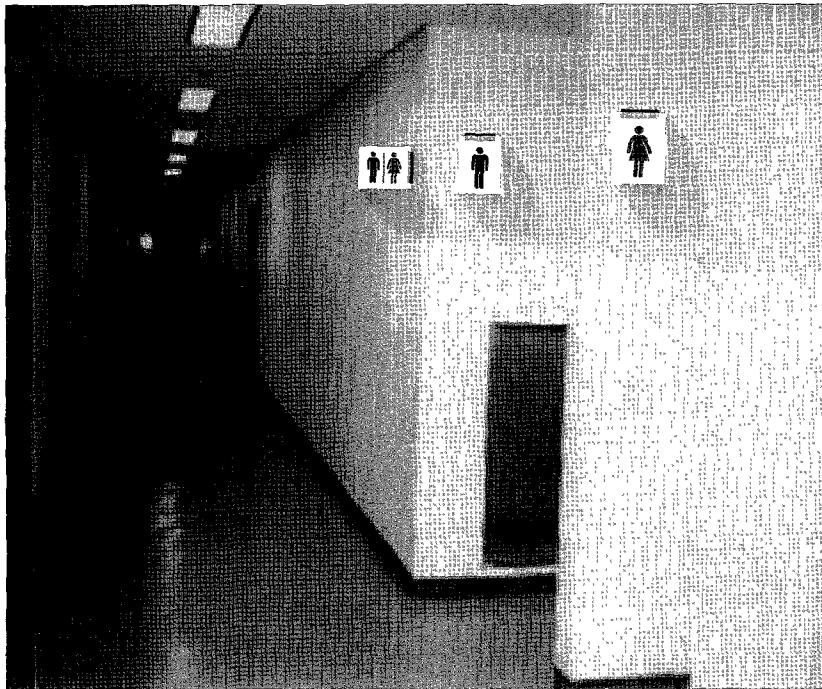


(그림50) 시설물 이용 사인물

4. 결론

기업이나 대학이나 철저한 유도 안내 시스템 구축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방문자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본 대학은 안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학생복지나 문수 잔디밭 등 조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온 만큼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안내 시스템 구축도 큰 투자 가치가 있음을 인지하고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안내 시스템이야말로 본 대학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 대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요인이되어 홍보 효과로도 연결될 것이다.

본 대학도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매년 신입생유치를 위한 많은 활동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림51) 화장실 안내 표지판 적용 예



(그림52) 시설물 이용 안내 표지판 적용 예
(진행방향: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미상구)

만약 고교생이나 학부형들이 본 대학을 찾아 방문했을 때 느끼는 나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유도안내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입생유치를 위한 많은 활동과 예산을 들여도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안내 시스템은 자체내의 구성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대학을 처음 찾는 방문자에게 언제까지 미로같은 설명을 해서 찾아오게 할 수는 없다. 대학내의 안내 시스템은 방문자가 여려운 설명을 듣지 않고도 보다 여유있고 편안하게 최종 목적지 까지 도착하고, 대학을 빠져나갈 수 있게 유도해 줌으로서 방문자는 물론 방문자를 맞는 입장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자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자료는 데이터화하여 보관해 두면 교내의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인쇄하여 도보방문자나 차량 방문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서 약속 장소나 차량 주차 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게 안내할 수 있는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 역시 통과 차량에 대한 장기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많은 대학들이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견고하고 크게 보이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매년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지출하고 있다. 유도 안내 표지판은 1회성으로 끝나는 홍보에 비해서 장기적이고 반영구적이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본 대학 유도 안내 표지판은 방문자나 통과 차량들의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게 ‘울산대학교’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대학 교내·외 안내 시스템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제 본 대학경쟁력의 한 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